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7월 11일)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조계종 조직개편안 '8부 3실 18국' 확정

미래특위, 8월 5일 8차 회의
조직개편안 논의 마무리 지어
9월 10일 임시회서 발의키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가 종무기관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무기관은 현 8부 4실 17국에서 8부 3실 18국으로 개편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미래특위는 8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정했다. 회의에는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은 8부 3실 18국으로 △종무행정부(행정국, 감사국) △기획재정부(기획국, 재정국) △포교부(전법국, 신행국) △교육복지부(교육국, 복지국) △사찰지원부(사찰지원국, 자산국), △문화부(문화정책국, 문화유산국) △사회부(사회협력국, 시민사회국) △호법부(호법국) 등이다. 총무원장 직속으로 사서실과 미디어홍보실, 조계종연구소, 미래본부를 두기로 했다.

먼저 우봉 스님이 전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기획재정부에 사업과 관련된 사업국이 신설될 수 있는 규정을 남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수익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과 판매, 소매사업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가 맡더라도 부동산 등 자산관리 관련 굵직한 종단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은 "수익사업은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사업국을 두고 거시적인 검토를 통해 수익사업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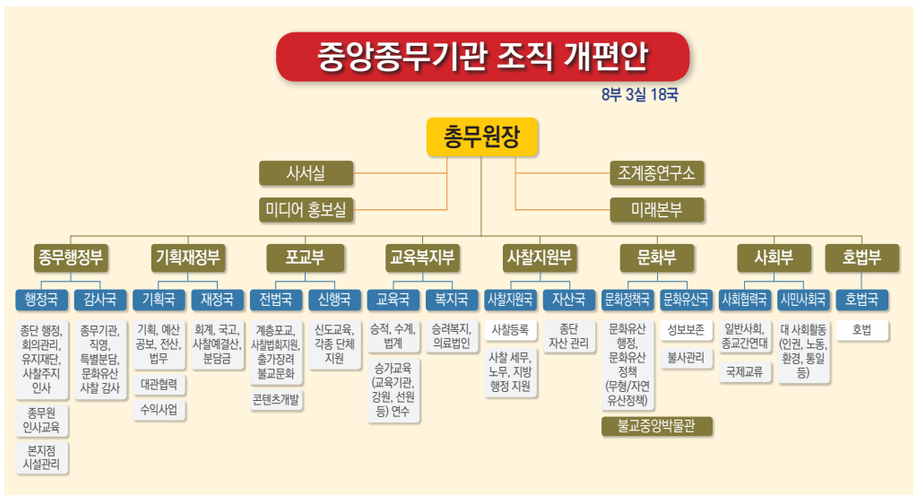
'사서실'을 '의전실'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해 바꾸지 않기로 했다. 공청회와 회의 등에서 조율됐던 '수행교육국'은 '교육국'으로 '승려복지국'은 '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홍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공보 역할과 미디어 홍보실의 홍보 기능을 통합하자는 의견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 운영이 바림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공보와 미디어 홍보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요즘 세대 트렌드에 맞는 톡톡 튀고 재미있는 홍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출가장려 업무를 강화하고 종단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이 오갔다. 포교부에 배치된 콘텐츠 개발 업무를 문화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는 포교부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기획실은 이날 미래특위에서 결정된 조직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초 종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9월 10일 개최될 임시종회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미래특위 차원에서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됐으니, 이후 종회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조직개편 시행 이후에도 개선상황이 있다면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8월 8일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서 데뷔공연을 갖고 있는 '비텐스'의 범준 스님(노래), 지안 스님(가야금), 기원 스님(플룻).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월클 BTS 넘을 불교계 'BTENS' 온다

〈비텐스〉

조계종 선보인 스님 포교 그룹
구산 · 광우 스님 등 10명 구성
8월 8일 부산박람회서 데뷔무대
"선명상 대중화에 기여할 것"

불교계의 젊고 힙한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 다재다능한 10명의 스님들이 뭉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계 BTS, '비텐스(BTENS)'를 선보인다. 비텐스는 'BUDDHA TEN SUNIM'의 약자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이다. 부처님 재세 시 탁월한 능력을 재능을 가진 10대 제자를 벤치마킹해, 젊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조계종 소속 스님 10명으로 구성했다.

비텐스에는 구산 스님(총무원 사서국장), 광우 스님(화계사), 고금 스님(광불사), 송산 스님(정혜사), 준한 스님(저스트비 홍대선원)과 도국 스님(청암사), 지안 스님(백천사), 범준 스님(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 기원 스님(정혜사), 반야 스님(영묘암) 등 총 10명의 비구·비구니스님들이 활동한다. 이들 스님들은 각각의 전공을 살려 문화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비텐스는 8월 8일 개막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서 데뷔공연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준 스님의 노래, 지안 스님의 가야금, 기원 스님의 플룻 연주로 '마음을 바라봐요', '고향의 봄', '자비송' 등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8월 24~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선명상 템플스테이', 9월 28일 '광화문 광장 국제선명상대회'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펼쳐지는 '한국 전통문화와의 만남' 행사에서도 다양한 퍼포먼스를 기획해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비텐스를 이끄는 총무원 사서국장 구산 스님은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와 선명상의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향후 비텐스 활동은 선명상을 다양한 장르로 풀어, 쉽고 힙(Hip)하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 고민이 있는 곳이면 국내외 방방곡곡을 찾아가 현대의 언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며 야단법석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수습기자

'2024 불교도 대법회' 승보공양 ARS 개통

060-700-7070 한 통화 1만 원

조계종이 9월 28일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승보공양을 위한 ARS를 개통했다. '060-700-7070'로 전화하면 한 통화에 1만 원을 후원할 수 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일환으로 준비된 '승보공양법회'는 9월 28일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봉행된다. 조계종은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을 모아 승보공양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불교의 오랜 전통문화인 승보공양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반목과 질시, 대립과 갈등의 병폐를 극복하고 배려와 존중, 존경과 공경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선언해 더불어 상생하는 공동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불교가 앞장서고자 한다"고 ARS 개통 취지를 밝혔다.

공양의 참된 정신은 6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재시(財施)를,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이에게는 법시(法施)를, 두려움에 차 있는 이에게는 무외시(無畏施)를 베푸는 것이 참된 공양이라는 것이다. 승보공양은 불자들이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준비한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불교도 대법회 승보공양 ARS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조계종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 상생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작은 정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

태고종, 최고 원로자문기구 승정원 '복원'

8월 1일 AW컨벤션센터서 간담회
원장에 금용 스님 만장일치 추대
부원장엔 보혜 · 혜운 스님 추대
종정 운경 스님 "경륜으로 조언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8월 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 2층 아리아스홀에서 첫 승정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사진 왼쪽부터 총무원장 상진 스님, 승정원장 금용 스님, 종정 예하 운경 스님, 승정원 부원장 보혜 스님, 혜운 스님.

태고종 승정원 원장에 금용 스님이, 부원장에는 보혜 스님과 혜운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1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 2층 아리아스홀에서 첫 승정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총무원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과 지난 7월 10일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추대된 23명의 승정 등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3명의 승정에게 추대패를 일일이 전달하며 승정 취임을 축하했다.

태고종 승정원은 원로자문기구로 그동안에는 종단 내홍으로 인해 구성되지 못해 활동이 전무했다. 이번 승정원 구성으로 태고종은 원로스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종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종정 운경 스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종단의 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해(知解)와 덕행(德行)이 출중한 스님들을 오랜만에 보게 되니 기쁘고 감사하다"며 "그간 유명무실했던 승정원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마음을 내 다시 만들고 종단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데 대해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종단과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보이고 지침을 설정해 나아갈 길로 이끌어 주는 게 주어진 책무이자 역할"이라면서 "종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종단의 사표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여기 계신 큰스님들이 종단 운영을 하실 때 소납이 학교 행정을 맡아 가르침을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큰스님들을 모시고 종단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술회했다. 상진 스님은 또 "종단의 앞날을 위해 후원하고 질책하면서 지도를 아끼지 않길 바란다"며 승정으로 추대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원장단을 꾸리자는 승정 혜운 스님의 제안에 참여 대중은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원장에 금용 스님을, 수석 부원장에 보혜 스님, 차석 부원장에 혜운 스님을 천거했고 승정모임은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승정원장에 추대된 금용 스님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제가 뽑혀 송구하다"며 "종정 예하와 총무원장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승정원이 애종심을 갖고 종단변화와 발전을 위한 자문역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승정원은 이른 시일 승정회의를 소집해 종단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위한 종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공식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승정원장 금용 스님은 1953년 선암사에서 축발한 이후 제11대 중앙종회의원, 불교전문강원장,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및 원로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전남 장흥 장원사 주지로 있다.

수석 부원장 보혜 스님은 1974년 류공 스님을 은사로 금오사에서 축발한 이후 법규위원,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초심원장, 총무원 행정부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5대 원로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양평 용천사 주지로 있다. 차석 부원장 혜운 스님은 1973년 동진 스님을 은사로 관음사에서 축발한 이후 서울북부교구 지방종회의장과 제12~13대 중앙종회의원, 원로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 노원구 송암사 주지로 있다.

진우 스님 "태아 영가, 천도재로 佛法 전해야"

8월 4일, 조계사 초하루법회서
"천도재로 삼독심 없애 평안"



"태아 영가, 수자령이 억울함과 원한을 가지지 않도록 달래줘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편안하게 해주는게 천도재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8월 4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된 초하루법회 법사로 나섰다. 이날 법회는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는 '백중맞이 태중아기 영가를 위한 특별 천도재'가 함께 봉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무더운 날씨에도 초하루법회와 특별 천도재에 참석하기 위해 온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태아 영가와 천도재의 의미를 주제로 법문을 시작했다.

스님은 먼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님은 "사방 십리나 되는 큰 바위를 1~3년 천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옷으로 닳아 없앨 정도의 시간을 '반석겁'이라고 한다. 그 오랜 기간 중 단 한번의 인연을 만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아 영가들도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오랜 시간 인연을 기다려 왔지만, 자의든 타의든 그 길이 막혀 버린 것"이라며 "그에 대한 원한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영가들의 아픔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태아 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라며 "영가들이 천도 염불을 통해 스스로 위안을 얻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모두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천도재"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스님은 천도재가 곧 마음을 닦는 육바라밀 행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천도재 가운데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육바라밀의 정진"이라며 "모두 항상 육바라밀 행을 닦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없애 평안한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사찰림 보호에 조계종·환경부 함께"

진우 스님, 환경부 장관에 '사찰림 역할'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사찰림 보호에 종단과 환경부가 함께 힘쓰자"고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산림이고 그 가운데 사찰림은 생태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며 "국립공원 대부분도 사찰 경내에 속하므로 국토 보호를 위해 앞으로 종단과 환경부의 협력이 원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스님은 "신불산 인근에 위치한 통도사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효용을 알 수 없다"며 "환경부에서 지역과 사찰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안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태"라며 "환경보호, 안전성, 경제성 등 다방면에서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가령 수습기자

조계종 선명상 콘텐츠 '자비명상' 공개

이웃 사랑 · 축원 내용 담겨

조계종이 국민정신 건강 증진과 마음 치유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에 나선 가운데 내면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9월 28일 국제선명상대회를 앞두고 제작한 '자비명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보인 콘텐츠 '자비명상'은 지난 5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청소년을 위한 행복명상', 7월 '소리명상'에 이어 네 번째다. 총 5분 13초 길이로, 내 안의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 힘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과 용서, 축원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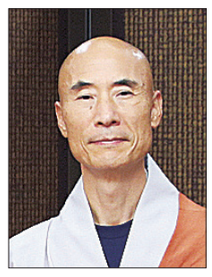
미래본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명상영상을 만들어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꾸준히 명상콘텐츠를 제작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비명상'은 조계종홍보국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임은호 기자

고운사 주지후보에 등운 스님

8월 8일 산중총회서 확정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차기 주지후보에 현 주지 등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제16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8일 고운사 화엄템플문화관에서 고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등운 스님의 당선을 투표없이 확정했다.

등운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삼보사, 서악사, 연미사 주지를 지냈다. 2020년부터 고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됩니다'
'특별한 할인가격, 더더 할인가격'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대 8일초 20개(한박스) 85,000원

파라핀 1.8리터 12병(한박스)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법룡사청년회 창립…청년불자들 '포교의 장' 발원

8월 3일, 비구니회관서 창립법회
20·30대 30명 수행정진 발원
광용 스님, 성장하는 모임 당부
선나 스님 "든든한 조력자 될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룡사청년회가 8월 3일 창립법회를 갖고 더 많은 청년불자들의 포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청년회를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청년불자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법룡사(주지 광용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는 8월 3일 경내 만불전에서 '법룡사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20~30대로 구성된 30여 명의 청년불자들은 도반들과 함께 불법을 공부하면서 더 많은 청년불자들의 포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청년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법룡사청년회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10여 명의 청년법우들은 부처님 전에 각자 매일 수행전진하겠다는 발원과 함께 '선우회'라는 청년불자 모임을 결성했다. 2024년 3월, 회향을 앞두고 최현묵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청년법우들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다고 뜻을 모았지만 인연처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청년불자 양성에 큰 관심을 지닌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만나 법룡사청년회를 창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날 사부대중의 축하 속에 여법하게 창립법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광용 스님은 스스로 밝은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불자들을 격려하고 찬탄했다. 스님은 격려사에서 "법룡사는 전국비구니회관으로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만 '청년법회가 없네'라는 생각을 하던 중,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어느날 5명의 젊고 참한 청년들을 보내주셨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어 "청년은 미래, 꿈, 희망, 용기, 에너지와 함께 고뇌와 불안 등이 공존하는 존재이지만 걱정 말라"면서 "법룡사가 있고, 부처님 법이 있고, 스승이 있고, 본인들의 불심과 발심이 있으니 충분하다. 우리 함께 부처님 법,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오늘의 환희심을 잘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자"고 당부했다.

광용 스님은 임원들에게 임명장 전달과 함께 신행생활에 필요한 보리수로 제작된 108염주와 절다포를 선물로 건냈다. 또 창립축하금을 전달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법룡사청년회 지도법사는 선나 스님이 담당하게 됐다. 선나 스님은 어미닭이 병아리가 잘 깨어나도록 껍질을 조금씩 쪼아준다는 '줄탁동시'라는 중국 사자성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도법사로서 역할을 다짐했다. 선나 스님은 "의욕적인 청년법우들이 힘껏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돼 응원하고 돕겠다"면서 "신앙과 수행이 겸비된 진정한 불자로 성장하도록 탁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불자들은 불교적 문구를 재미있게 구성, 직접 제작한 단체복을 입고 법회에 참여하는 등 청년만의 톡톡튀는 감성을 표현해 기대감을 높였다. 또 광용 스님과 지도법사 스님 등에게 만불전 석가모니 부처님과 '힙한' 문구가 새겨넣은 텀블러를 선물하기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청년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장애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부처님과 같은 자비의 미소로 세상을 마주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들은 발원문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인연이 시작되고 나에게 인과가 주어짐을 깨달아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뤄짐을 명심하고 항상 잊지 않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좋은 인연 함께하는 행복한 청년회"

최현묵 법룡사청년회장



법룡사청년회가 창립하는데 선두 역할을 한 최현묵 회장(36, 혜명)은 충주 석종사에서 20여년 간 신행활동을 해왔다. 최 회장은 "7년 전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마음이 맞는 법우들과 기도모임을 갖고 인근에서 신행처를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2021년부터 기도모임을 해온 5명을 주축으로 올해 초 내친김에 직접 청년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룡사청년회는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개인사업자, 대기업 재직자, 군인 등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절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은 같다.

법룡사청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경내에 모여 사경, 불교성전 독송, 지도법사 스님과 대화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맛집 핫플' 방문과 스크린 골프 등 동호회 성격의 활동, 취미생활 공유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 한다. 이밖에도 수계법회와 불교학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인 신행활동 뿐 아니라 대사회 역할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좋은 인연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청년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SNS를 최대한 활용해 활동을 홍보하고 회원도 모집한다. 최 회장은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 양식도 만들었다"면서 "온라인 상에서 함께 토론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도 자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묵 회장은 올해 회원 108명 모집을 발원했다. 최 회장은 "내년 연등회에 108명 법우들과 함께 연등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마음의 힐링도 찾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짜임새있는 청년법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혜원 스님 말씀 되새기며 열심히 정진을"

한마음선원, 연자당 혜원 스님 7주기 추모다례재


한마음선원은 8월 3일 안양본원 5층 대법당에서 '연자당 혜원 스님 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혜원 스님의 영전에 헌화하는 모습.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전 주지 연자당 혜원 스님의 원적 7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8월 3일 안양본원 5층 대법당에서 '연자당 혜원 스님 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다례재를 준비하며 혜원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참 용감하셨다'고 기억했다. 스님은 그렇게 우리 대중을 이끌어주셨다"도 술회하고 "혜원 스님이 진정 보고 싶고 그립다면, 스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영상 '마음의 편지'에서는 울산 지원의 법능 이경호 거사가 혜원 스님과의 인연을 전했다. 이 거사는 "처음에는 나 혼자 살겠다고 우리 가족만 살겠다고 선원에 다녔지만 이제는 그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는 바 없이 베풀 수 있게 됐다. 스님께 받은 큰 사랑을 회향하려고 한다"면서 "스님께 물러서지 않는 정진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꼭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전 주지 혜원 스님은 1981년 대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87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를 맡아 한마음선원이 도심포교 거점도량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13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0대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을 지냈다. 2012년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8월 21일 법랍 37세 세수 80세로 원적에 들었다.

안양=신중일 기자

화엄사 '템플김밥' 미국·유럽 진출한다

세계 1위 냉동김밥 업체 올곧
'화엄사 유부 우엉김밥' 제작
향후 호주, 남미 등 진출 계획



지리산 화엄사표 '냉동김밥'이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한다.〈사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냉동김밥 글로벌 1위 기업인 ㈜올곧(대표 최홍국)과 손을 잡고 미국, 유럽 수출을 시작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2023년 미국 대형마트에 냉동김밥을 공급해 품귀현상을 이끌고 있는 ㈜올곧은 한국의 김밥을 글로벌 푸드로 발돋움 시키고 있는 화제의 주인공이다. 화엄사는 ㈜올곧과 손잡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K-푸드 열풍을 주도함과 동시에 한국불교 음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차후 유럽 및 대양주(호주 및 뉴질랜드), 남미, 아시아까지 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엄사는 "템플 냉동김밥을 시작으로 사찰식 냉동비빔밥 및 만두, 천연 고추장 및 된장 등 화엄사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의 글로벌 제조, 유통을 위해 제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올 여름 휴가, 부처님 품서 자유 꿈꾸다

피서 대신 마음 피스 찾아 사찰로
단기출가 나선 이들 대자유인 경험
봉녕사, 열흘간 2기 여성출가학교
조계사 청년 16명 출가행자 거듭나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조계사 경내에서 무명초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삭발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바야흐로 휴가철인 요즘. 집에서 푹 쉴 수도, 어딘가로 훌쩍 떠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올 여름 휴가는 부처님 품에서 보내겠다고 서원한 이들이 있다. 바로 단기출가에 나선 이들이다. 피서 대신 마음의 피스(평화)를 택한 이들은 번뇌와 망상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속세의 인연과 잡념을 끊은 채 산문을 활짝 연 사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7월 2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2기 여성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하고, 대자유인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열린 봉녕사 제1기 여성출가학교에서는 실제 출가를 결심한 입교자가 나와 출가자 감소 시대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봉녕사는 다시 한 번의 한국 전통 승가 생활을 경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2기는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입교할 수 있도록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19세부터 61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입교생은 '천진향' '진여화' '지혜륜' '반야심' '자성지' 등 새로운 불명을 받고 8월 4일까지 부처님 법에 의지해 수행정진했다. △발우공양습의·도량안내(7월 27일) △부처님 생애·불교상담·불교요가(7월 28일) △계율강의·행다선명상(7월 29일) △일보일배·주지스님 법문·삼귀의 오계 수계식·소모둠 차담(7월 30일) △기초교리·붓다볼 명상(7월 31일) △자비수참 기도·좌선실수(8월 1일) △선재 스님 사찰음식 특강·서로 부처님되기·마음 나누기(8월 2일) △발우용품과 수행용품 정리와 대청소, 대중참회 자자(8월 3일) △회향식(8월 4일)을 통해 비구니 승가의 일상적인 수행과 생활 전반을 체험했다.

조계사에서는 청년회원 16명이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 단기출가 생활을 해 화제를 모았다.

조계사는 7월 3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사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에서 조계사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출가행자로 거듭났다. 이들은 8월 4일까지 5일 동안 조계사에서 생활하며 예불, 교육, 정진, 운력 등을 수행했다.

앞서 조계사는 4월 29일~5월 4일, 5월 5일~10일 두차례에 걸쳐 '청년·대학생 단기출가'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봉축 기간 첫걸음을 뗀 발심출가 프로그램은 교계 안팎으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며 조계사의 미래세대 전법 및 포교 활성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쟁에 지치고 불확실한 미래에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 그 결과 단기간의 출가행사 생활 체험이 최근 정식 출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해 동참한 이번 참가자들은 출가 기간 최선을 다해 수행에 임했다.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내는 '무명초 자르기'를 시작으로 개인물품 봉안, 행자복 착복, 대승원력 10계 절하기 및 발원문 낭독 등을 통해 출가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사는 발심 단기출가를 통해 청년·대학생 전법을 일회성 구호로 그치지 않고 향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대학생이 가진 삶의 고민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비롯한 불교 의식과 문화를 미래세대에 전파, 청년 수행자 유입 및 출가자 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8월 14~19일 추가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참가 인원 접수 중이다.

4대 종교인 '만남중창단' 뉴욕 유엔서 평화 노래한다

세계 최초 4대 종교 중창단
성관 스님 등 종교인 구성돼
8월 23~30일 美뉴욕 방문해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등 공연


만남중창단서 활동 중인 4대 종교인들. 사진 왼쪽부터 하성용 신부, 박세웅 교무, 성진 스님, 김진 목사. 8월 23~30일 미국 뉴욕에서 평화를 주제로 공연과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사진=불광미디어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성직자로 구성된 세계 최초 4대 종교인 중창단 '만남중창단'이 미국 뉴욕에서 평화를 노래한다.

(사)종교인평화봉사단(이사장 김진)은 "오는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뉴욕에서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특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8월 23~30일까지 진행될 '만남중창단' 뉴욕 활동은 먼저 ICCGC(Interfaith Coalition Conference for Global Citizenship)와 CoNGO(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가 공동주최하는 국제콘퍼런스 참가로 시작된다.

지난 1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BTS에 이어 유엔에 가서 공연하는 최초의 종교인이 되는 발칙한 꿈을 갖고 있다"고 밝힌 만남중창단의 소원도 이번 방미활동 중 이뤄진다. 유엔처치센터(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에 모인 세계종교지도자들 앞에서 노래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만남중창단은 '행복의 참 주인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마음선원 뉴욕지원(플러싱)과 보리사(뉴저지)에서 공연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만남중창단의 방미활동 하이라이트는 뉴욕 '워싱턴 스퀘어 파크'와 '센트럴 파크'에서 이뤄지는 '평화의 버스킹(Peace Busking)'이다. 뉴욕 한복판에서 펼쳐질 세계 최초 4대 종교 성직자 중창단의 버스킹은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종교 화합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만남중창단은 세계 갈등의 상징인 9.11 메모리얼 뮤지엄을 방문해 '9분 11초(9min. & 11sec.)' 평화 침묵 명상의 시간도 갖는다.

신중일 기자

대불련, '함께하는 행복' 주제로 영캠프

8월 2~4일 낙산사 일대서
제15회 영부디스트캠프 회향

한국불교 미래의 동량인 대학생 불자들이 제15회 영부디스트 캠프를 원만 회향했다.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는 8월 2~4일, 강원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나를 찾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을 주제로 전국 대학생 불자들이 단합하고 교류하는 제15회 'KBUF Young Buddhist Camp(영부디스트 캠프, 이하 영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대학생 청년 불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캠프 첫날인 2일,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 인월료 강당에서 입재식이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현우 중앙회장은 "영캠프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가며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주변 도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무수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대학생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응원하며 함께 행복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입재식에 이어 본격적인 영캠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법등별 시간 △청춘강연 △청춘토크파티 △스님과의 대화 △낙산사 사찰 미션 순례 △낙산 해수욕장 물놀이 △일출명상 △대불련의 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불자들은 여름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이번 영캠프에 참가한 신재영(강원대) 학생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참가다. 자주 오는 낙산사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재밌게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며 "영캠프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재난 마라톤…"5km 달리고 대비력 키우자"

더프라미스, 온오프라인 챌린지
유익하게 재난 대비 방법 익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8월 13일 '재난 마라톤'을 시작한다. 재난 마라톤은 재난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익히는 온오프라인 챌린지다. 기후위기 등 재난 일상화 시대 속 재미있고 유익하게 재난 대비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재난 마라톤은 5km 코스로, 재난 상황에 대비해 물리적 대비 방법과 상대적으로 놓치기 쉬운 심리적 대비 방법에 대해 다룬다.

5주간 생존 배낭을 꾸리는 '생존배낭 언박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과 색깔을 찾는 '감정 컬러 플레이리스트', 스마트폰으로 방재 훈련 방법을 익히는 '구해줘! 스마트폰!', 마음 안정을 위한 움직임을 따라하는 '눕방: 회복의 움직임', 싱잉볼 명상을 통해 긴장감을 내려놓는 '싱야(夜)'로 구성됐다. 참여자가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한 줄 칭찬 릴레이'와 시중에 판매되는 비상식량을 시식하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비상식량 시식회'도 준비됐다. 참가비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재난 마라톤 참여자 전원에게는 'Hold on tight' 운동화 끈이, 완주자에게는 디지털 완주증, 스마트폰 밴드 홀더, 반창고 세트, 더프라미스 티셔츠(3명 추첨), 템플스테이 1일권(5명 추첨)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내영 기자

한일 청소년, 제13회 불교 교류 활동 성료

8월 1~5일, 조계사, 석불사 등서
템플스테이·법회·인경 의식 경험
한국불교 전통문화 체험 시간도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각국 문화를 교류하고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명 스님, 이하 파라미타)는 8월 1~5일 서울 조계사, 석불사 일대에서 '제13회 한·일 청소년 불교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교류는 파라미타와 일본 아시아불교도협회(이사장 카이 시겐 스님)가 공동주최하고, 조계종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교류 활동은 4박 5일간 한국 사찰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와 한국 가정에서 양국 청소년들의 우애와 추억을 쌓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8월 1일 석불사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일본 지도자 및 청소년들은 8월 4일 조계사로 이동해, 조계사 중·고등학생회 법우들과 함께 일요법회에 참석했다. 경내에서 인경(印經)을 들고 화엄일승법계도를 도는 의식에 동참해 한국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류단은 8월 5일 오전 10시에 조계사에서 회향식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교류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민재 수습기자

문화사업단, 사찰음식 강좌 수강생 모집

향적세계 · 동화사 · 봉녕사
3곳에서 초급과정 개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2024년 3차 사찰음식 정규강좌 초급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와 대구 동화사, 수원 봉녕사 3곳에서 주 1회 3시간씩 총 12주간 수업이 진행된다. 강좌당 정원은 24명이다.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에서는 3개 초급과정이 마련된다. 중제 스님이 강의하는 초급과정은 매주 금요일 오전반(10시~13시)에 운영된다. 수강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성견 스님이 강사로 나선 목요일 반은 오전반(10시~13시), 오후반(14시~17시)이 개설된다. 수강 기간은 9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다.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2024년 교무금 납부자에 한함)는 향적세계 수강료 10%를 할인·환급받을 수 있다. 수강 문의는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02-2655-2776)로 하면 된다.

대구 동화사는 2개의 초급과정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반(10시~13시)과 오후반(13시 30분~17시 30분)에는 동희 스님이 강의를 맡는다. 수강 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동화사 사찰음식체험관(053-980-7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 봉녕사 초급과정은 여거 스님이 강의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반(10시~13시)이 운영되며,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봉녕사에서는 중급과정도 마련된다. 중급과정은 9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3시에 개설된다. 다만 중급과정은 초급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한정해 수강할 수 있다. 문의는 금비라 사찰음식교육관(031-252-4128)으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불교환경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연다

9월 7일 하남 상불사 경내서
23년 회고 · 신규 회원 환영 등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9월 7일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 스님)에서 '불교환경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연다. '생명의 꽃 피어라'가 주제인 이번 기념식은 불교환경연대의 23년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회원 확대 초록릴레이를 통해 새롭게 맞이한 신규 회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다.

본식 1부에서는 불교환경연대의 2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회고 및 비전 공유'가 이뤄진다. 또한 회원 시상식을 통해 10년 이상 장기회원, 신규 회원을 가장 많이 유치한 회원, 적극적으로 환경연대 활동에 참여한 회원 등에게 감사를 전한다.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 요술당나귀 라마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2부에는 기념식 참가자 모두에게 녹색사찰 상불사에서 직접 기른 작물로 만든 사찰음식을 대접한다.

불교환경연대 창립 23주년 기념 '생명의 꽃 피어라'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9월 6일까지 구글폼(https://bit.ly/생명의꽃피어라)으로 접수받는다. 김가령 수습기자

불교음악원, 신작찬불가 작곡부문 공모

8월 28일까지 등기 · 이메일 접수

조계종이 찬불가 보급과 불교음악 대중화를 위해 신작 찬불가 작곡부문 공모를 실시한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불기2568(2024)년 제11회 신작 찬불가 작곡부문 공모'는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는다.

작곡부문 공모는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정 가사(제11회 신작 찬불가 작사부문 공모 당선작)로 지원 가능하다.

응모신청서, 작곡계획서, 악보5부(이메일 접수는 PDF파일 형식), 사진 1매, 음원파일 USB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우체국 등기나 이메일(cobm007@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10월 중 진행될 불교음악상 및 신작 찬불가 시상식에서 초연된다. 김내영 기자

오로지 선명상…매 순간 깨어 있는 '나'를 만나다

용인 법륜사, 선명상 집중수행 템플스테이 현장

2박 3일 동안 붓다볼 명상 등 경험
좌선으로 생각 · 분별 끊고 정신 집중
"정신 활동이 쉬어야 진정한 휴식"
참가자들 "몸 · 마음 건강해져" 호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현대인의 일상은 늘 바쁘고 분주하다. 업무와 책임에 치여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작 '나'를 놓칠 때가 많다. 가족, 지인들 먼저 신경 쓰는 탓에 '나'는 뒷전이 되기 일쑤다. '나'를 잃어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잠깐의 휴식과 자기 성찰이다.

고요한 산사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내면과 마주하는 2박 3일의 여정이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 스님)에 마련됐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기 위해 법륜사 선명상 집중수행 템플스테이 현장을 찾았다.

8월 3일, 깜깜한 새벽길을 달려 법륜사 대웅전에 도착했다. 때맞춰 싱그러운 초록색 옷을 똑같이 입은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미 하루 전날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저녁예불을 경험한 만큼 익숙하게 부처님 전을 향해 손을 모았다. 곧이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 새벽예불이 시작됐다. 삼라만상을 깨우는 스님들의 목탁소리와 염불소리가 법당을 가득히 메웠다. 예불의 장엄한 분위기에 압도된 듯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던 몇몇 참가자들도 자세를 다잡았다. 오랜만에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해방하고, 깊숙이 묻어져 있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탑돌이가 이어졌다. 법륜사 문화국장 덕진 스님은 "발바닥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하며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말을 이해하기 쉽진 않았지만,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움직임을 확인하며 그 의미를 가늠했다. 무엇을 하던 그 순간 알아차림하고 깨어 있을 것. 그 과정이 '본래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걷고 있는 '나'에 온전히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걸음은 여여당을 향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참가자들 사이로 고요함을 깬 건 붓다볼을 문지르는 소리였다. 붓다볼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파동을 좇아 명상에 들자 몸과 마음이 빠르게 이완됐다.

"나는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면 청정하고 맑아지는 내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덕진 스님의 안내는 내 몸 구석구석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집중력을 높여줬다. 특히, 스님은 참가자 3명에게 큰 붓다볼에 들어가 발로 파동을 명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참가자들은 "울림이 내 안의 나쁜 기운을 내보내는 느낌이었다" "소름이 돋으며 정신이 맑아졌다" 등 호평을 쏟아냈다.

명상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동이 트고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침공양 시간. 이날 메뉴는 법륜사 대중스님의 삭발·목욕 날에 맞춰 특별히 찰밥과 미역국, 갖가지 나물, 두부전 등으로 준비됐다. 과한 조미료 없이 속이 부담스럽지 않은 든든한 한 끼. '꿀맛'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배부름도 잠시 홍보관에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일암 스님과 차담을 가졌다. 따뜻하고 은은한 향기를 품은 오룡차(烏龍茶, 녹차와 홍차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반발효차)를 마시며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괜스레 마음이 편안해진다. 담소는 새벽 일정을 함께했던 도반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인천에서 온 김영준(57) 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아내와 이곳에 왔다. 김 씨는 "가족 생각, 일 생각에 쌓여 번잡하게 살아왔다. 나이 60을 앞두고 휴가 겸 평소 꼭 해보고 싶었던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게 됐다"며 "명상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 잡생각 사이에서 순간순간 '나'를 떠올릴 수 있었다. 일상을 떠나 있는 지금, 너무 잘 왔다 싶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참가자 중에는 조금 특별한 가족도 눈에 띄었다. 할머니와 중고등학생 손녀 3명(김태민·오유진·김태희)으로 구성된 가족이다. 장홍분 할머니(71)는 손녀들에게 사찰의 아름다움과 한국불교 문화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 손녀들도 그런 할머니를 흔쾌히 따라나섰다. 손녀 김태민(17) 씨는 "스님들이 사는 곳과 생활 전반이 궁금했다"며 "생각보다 사찰음식도 맛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분도 좋다"고 말했다.

서규리(63) 씨는 올해 7월 큰아들과 처음 법륜사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다. 당시 좋은 기억이 남아, 수술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둘째 아들 부부를 이끌고 다시 찾았다. 서 씨는 "차담, 타종 체험, 명상 등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이 너무 좋았다. 아들도 이곳에서의 경험이 큰 울림이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선을 끝내고 여여당 앞마당에서 포행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일암 스님과 참가자들.


졸음을 쫓으려 어깨죽지에 장군죽비를 내리치고 있다.


붓다볼에 들어가 발로 파동을 느끼고 있다.


아침공양 모습.

심신을 치유하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여여당으로 자리를 옮겨 집중 선명상에 들어간다. 자세를 바르게 해 생각·분별을 끊고 정신을 집중하는 좌선이다. 졸음이나 잡념으로 자세가 흐트러진 참가자들의 어깨죽지에는 장군죽비가 내려쳐졌다. 처음엔 안 쓰던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뒤틀려 집중이 어려웠다. 시간이 갈수록 긴장과 불편함은 줄고, 내면의 평화는 깊어졌다. 1시간 가량 지났을 무렵 죽비 소리에 눈을 떴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처럼 확실히 눈앞 물체가 뚜렷하게 보였다.

"점차 자세가 좋아지고, 명상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는 게 드러난다"는 스님의 칭찬에 다른 참가자들도 "하면 할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도반들의 에너지가 느껴져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훨씬 몸이 가볍다" "새롭고 깨달음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회상하며 '나'를 마주하는 계기가 됐다" "부정적 감정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이다" 등의 후기를 들려줬다.

좌선에 지친 몸을 풀기 위해 가볍게 걷는 포행을 병행한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지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선명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단계다.

아침 일과가 마무리됐다. 그렇다고 모든 정진이 끝난 건 아니다. 일정은 또 다시 반복된다. 점심을 먹고 또 한 번 차담이 진행됐다. 자신의 수행 방법과 상태를 스님과 점검하면서 개선할 점을 발견하고, 수행의 방향성을 잡기 위함이다. 차의 효능, 사찰의 구조 등을 설명하던 스님에게 한 참가자가 "명상과 멍때리기의 차이점"을 물었다. 스님은 "멍때리기는 무기공(無記空, 공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념의 지혜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경지에 이른 것)에 빠질 위험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알아차림을 잃으면 멍때리기도 명상도 효과가 없다"고 일러줬다.

그렇게 점심, 저녁을 나눠 선명상 집중수행이 2차례 더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조금씩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나'를 통해 '자기 조절력'을 갖춰갔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일암 스님은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원인에 의문을 갖다 보면 평소에는 관심 없던 '나'라는 주체를 인식할 수 있다"며 "나와 내가 조화를 이루는 그 지점까지만 가더라도 욕구를 절제하는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고, 긍정과 안정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휴식이란 단순히 잠을 자거나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신 활동을 쉬는 상태"며 "명상을 통해 생각을 멈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에서 비롯된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마주한다. 이런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 관음응신상

-관음보살님의 신통한 위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소서-

40여년간 불교미술조각에 외길을 걸어온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김승엽 소장은 권정학 선생의 문하생으로 생의 마지막 결과물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33관음상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상경력
1987 정통불교미술대전 '장려상' (동국대 주최)
1989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조계종 주최)
1991 대한민국불교미술재전 '가작' (조계종 주최)
2008 신라미술대전(조소부문) '입선' (한국미술협회 주최)
2009 제5회 국제종합예술재전 '대상' (한서미술협회 주최)

일체중생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하심과 가피를 입고 살아가며 중생은 그 은혜를 알아 보은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번 33관음응신상 조성의 후원을 통해 가내에 큰 은혜와 기적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1709-1692-11 성수진 사무국장
연 락 처 | 금어 불교미술조성소 소장 김승엽 010-6262-5840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부산불교 힘 모아 환경보살의 길 나아가자”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2주년 기념법회 봉행

7월 27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여여정사 녹색사찰 협약 진행
범어사 후원금 전달 통해 응원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지역에서 환경과 생명 돌봄 활동을 이어온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는 7월 27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2주년 기념 법회 및 후원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를 비롯하여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공동대표 정관 스님,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행복선원 윤광 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과 김창원 운영위원장,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서울본부 사무총장과 울산, 광주 불교환경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환경보살의 서원을 다짐했다.

행사는 1부 기념법회와 2부 후원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 법회는 △개회 △삼귀의 및 반야심경 △경과보고 △내빈 소개 및 인사말 △녹색사찰 협약식 △축사 △격려사 △상패 전달 △임명장 수여 △후원금 전달 △후원서 작성 순서로 진행됐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부산불교환경연대는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2022년 4월 20일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녹색 사찰 협약식과 녹색 불교 아카데미 사업을 펼치면서 일회용 사용 줄이기, 비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2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이룬 성과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며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의를 다지며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7월 27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2주년 기념 법회 및 후원음악회’를 봉행했다. 공로상과 감사장을 받은 수상자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격려사를 통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산에 올라가면 나무도 보고 꽃들도 보고 또 뛰어노는 다람쥐도 보고, 흘러가는 물을 보면 마음까지 상쾌하고 후련하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자연환경이 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도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삭막해진 바람이 파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이날 행사에서 여여정사와 녹색사찰 협약식을 가졌다.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은 “이번 녹색사찰 협약식을 계기로 환경을 보호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지난 2년간 부산불교환경연대를 위해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공로상은 1호 녹색사찰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이, 감사장은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봉사상은 황은아 활동가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진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김창원 삼일아이앤씨주식회사 회장을 부산불교환경연대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특히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김창원 운영위원장이 부산불교환경연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활동을 응원하는 시간도 열렸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4월 20일 창립식을 봉행했다. 이후 부처님의 생명 평화 사상을 불교 공동체에서 실현하고 지구 생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사찰 만들기에 앞장 서왔으며 녹색불교아카데미를 열어 환경활동가를 양성했다. 앞으로 생태방생 운동과 지도자 양성 등을 진행하고 낙동강 세계문화유산 추진, 황령산 지키기,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등 다양한 환경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전법’ 주제 여름수련회

8월 2일~4일, 국제선센터서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불기2568년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바로 지금 여기, 깨어 있는 삶! 정진과 전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군포교와 어린이 전법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마음챙김 명상과 월호 스님의 선정쌍수 등 수행정진이 이어졌다. 또 봉은사, 조계사, 진관사 등 각 지역별로 사찰순례 및 문화체험도 이어졌다.

특히 입재식에서 열린 표창장 수여식에서 김경희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류정숙 사무총장이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전 스님 〈좋은 건…〉 프랑스판 출간 북콘서트

8월 7일 쿠무다 콘서트홀서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를 출간한 성전 스님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북콘서트는 스님의 책이 프랑스에서 불어로 출간된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명경문화재단(이사장 주석 스님)은 8월 7일 부산 송정동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쿠무다와 함께 하는 성전 스님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나의 글쓰기’를 주제로 성전 스님의 오프닝 미니 강연으로 시작됐으며 부산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의 동반 출현 및 격려사가 이어졌다.

성전 스님의 책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는 101가지 지혜를 담은 산문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스리랑카 이운 진신사리, 홍법사에 나투다

8월 3일 진신사리 이운 법회
마하매우나워 사원 기증 사리
스리랑카 전통 의식으로 이운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8월 3일 경내 일원에서 ‘스리랑카 마하매우나워 사원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봉안 및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마하매우나워 사원이 홍법사에 기증한 진신사리 봉안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안산 마하매우나워 사원 주지 삿다위무뜨 스님, 주한스리랑카 대사관 사비트리 파나보크 대사, 재한 스리랑카 불자 및 홍법사 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이운의식은 일주문부터 대광명전까지 이어졌으며 기념 법회는 점화를 시작으로 오계 독송, 축하 공연, 축사, 부처님 진신사리 유래 해설, 부처님 진신사리 기증 및 친견 순으로 봉행됐다. 축하 공연은 스리랑카에서 준비한 스리랑카 전통 무용(캔디안 댄스), 한국의 찬불가, 한국 전통 화관무 등이 이어졌으며 양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홍법사는 8월 3일 경내 일대에서 ‘스리랑카 마하매우나워 사원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봉안 및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진신사리는 일생에 한번 만나기 힘든 귀한 인연이다. 스리랑카 전통의 사리 이운의식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며 이번 행사를 위해 동참한 스리랑카 청년 불자들의 신심에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산 마하매우나워 사원 주지 삿다위무뜨 스님은 “한국 안산 마하매우나워 사원을 개원할 당시 심산 스님은 큰 도움을 주셨고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소중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한국 불교계와 협력하며 더욱 정진 수행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싱잉볼치유의소리·봉녕사, 명상발전 MOU

8월 5일, 홍법사 경내서

(사)싱잉볼치유의소리(이사장 심산 스님)와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8월 5일 홍법사 경내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불교 명상 발전과 확장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협약식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 포교국장 능윤 스님, 학감 도연 스님, 율감 선정 스님, 교무국장 여요 스님을 비롯해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싱잉볼치유의소리와 봉녕사는 스님들의 포교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에 공동 노력하고, (사)싱잉볼치유의소리는 봉녕사 승가대학 스님들을 대상으로 붓다볼(싱잉볼) 명상 교육을 진행한다. 앞으로 봉녕사 승가대학은 정기적으로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자격과정을 운영하며 다가오는 11월부터는 봉녕사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붓다볼 명상에 대해 연구하고 체험하며 널리 포교에 활용할 분들이 바로 학인스님들”이라며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고 널리 운영해 불교명상의 발전과 포교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은 “불교의 다양한 수행 방법 가운데 소리명상은 그 무엇보다 수승하고 효과가 빠르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접근할 수 있어 포교의 도구로 큰 장점을 가진다”며 “불교 명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맞춰 붓다볼을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어 무엇보다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불편함과 아픔의 고통!
마이크로파로 통증 염증을 치유하세요~
극초단파 ARA-880 P
3분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MICRO WAVE DIATHERMY ARA-880 P
ARA biomedical
내 주치의 의료기가 내곁에~
불면증, 관절염, 목, 어깨, 허리, 무릎, 좌골신경통, 치질, 무좀, 습진, 하지정맥, 비염, 천식, 변비, 설사, 비만, 위염,기관지, 위경련, 족저근막염, 당뇨, 중풍, 고혈압, 신종플루, 등 통증완화
▶고출력 극초단파 (250W)로 열감과 지속성이 뛰어남
▶치료 부위에 따라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
▶쉽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사용하기가 편리
▶제품의 경량화(30KG)로 이동하기 용이
상담문의 부성
T 010.3730.9413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창원불교 중흥”

창원시 불교총연합신도회 창립법회

7월 25일 창원 컨벤션센터 3층서
초대 회장으로 이상연 불자 취임
지역 대학생 · 청소년 장학금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발전하고, 승가를 외호하며 대승불교 운동을 통한 불국토를 이룩을 목표로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이하 신도회)가 창립됐다.

신도회는 7월 25일 창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창립법회와 이상연 초대 회장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로써 창원특례시는 승가단체 창원불교연합회와 재가단체 창원총연합신도회, 두 단체가 함께 불법을 구현하여 불국토 건설을 위해 활동하게 됐다.

신도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상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원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교 저변 확장에 힘쓰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창원 불교계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는 창원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재가 불교단체로서 큰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이 땅의 불국정토 실현을 위해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는 오늘 창립된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 법륜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 쉼 없이 불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정법사 광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은 이를 믿고 따르는 재가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오늘 창립법회를 봉행하는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도 부처님 가르침을 옹호하고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단체가 되기를 부처님 전에 합장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부처님의 가르침 계승 · 발전을 목표로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가 창립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조명래 부시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창원에 불교총연합신도회가 탄생한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통일되는 밑거름이 돼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의 기틀이 될 것이다”며 “창원시도 부처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회장은 김정기 원흥사 신도회장 등 21명의 부회장단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이경태 성균관대 학생 등 4명의 대학생과 김도현 학생 등 2명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총 550만원으로 이상연 회장이 출연했다. 성주사 법안 스님은 신도회 발전기금 500만원, 진해 정암사 상운 스님은 1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김선정 정법사 신도회장의 발원문 낭독과 정법사, 성주사 등 7개 사찰의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2부 행사는 떡 케이크 커팅과 브릴란테 현악4중주 공연이 펼쳐졌다.

한여름 밤 모기장서 뮤지컬에 취하다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
지역주민 등 700여 명 참석
유럽 · 미국 뮤지컬 선보여

한여름 밤 산사에서 뮤지컬을 감상하는 ‘모기장 음악회’가 열렸다.

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8월 3일 경내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2024 제4회 모기장영화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천년의 빛 나를 비추다’라는 주제의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특별 초청 예약 500명까지 총 7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화엄사는 이번 음악회를 지역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과 함께한다는데 초점을 뒀다. 이에 구례군민과 마산면 지역주민들, 해외이주민, 구례지역 청소년 학생, 구례군 마산면 의용소방대, 구례군 체육회, 지리산 상가주민 등을 우선 초청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지리산 노고단이 보이고, 푸른 하늘과 숲,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며 “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향기와 빛을 모두에게 드리는 시간이다. 더운 날이지만 지리산 여름밤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산속에 드리우자, 500여 개의 모기장에 반딧불이 하나둘씩 밝혀지며 음악회가 시작됐다.

음악회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콘(KoN)의 사회와 연주로 시작됐다. 특히 이날 모기장 음악회는 뮤지컬 영화음악 감상이 주제인 만큼, 영국, 유럽, 미국의 뮤지컬 대표작들의 노래가 이어졌다.

첫 음악은 영국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연주와 노래와 함께 유럽 뮤지컬 ‘엘리자벳’을 뮤지컬 배우 박혜민이 노래했다. 이어 미국 뮤지컬 ‘지킬엔 하이드’,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켄슈타인’, ‘파가니니’ 등에서 나온 음악을 콘, 윤형렬의 연주와 노래로 여름밤 화엄사를 찾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향일암 “영양식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7월 26일 여수 성산공원서
복지단체 보문복지회 함께
지역 어르신 500여 명 초청

무더운 여름과 길어지는 장마에 지친 어르신들 건강을 돌보기 위해 효도 잔치가 열렸다.

향일암과 여수 최대 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7월 26일 여수 성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지역 어르신 500명을 초청해 여름 보양식을 대접하는 ‘향일암·보문복지회가 함께하는 여름철 독거노인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펼쳤다.〈사진〉

연규 스님과 봉사자들은 보양식 500인분과 함께 후식인 수박을 직접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향일암 신도회도 어르신들에게 라면을 선물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을 비롯해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김미리 여사(주철현 국회의원 배우자)와 보문복지회 산하 17개 시설기관장 및 봉사자, 향일암 신도 등이 함께했다.

연규 스님은 “다가가는 복지, 편리한 복지,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마음으로 향일암과 보문복지회 17개 시설기관에서 정성을 다해 마련했다”며 “어르신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웃고 즐기면서 나눔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나눔 잔치에는 가수 법은 스님과 전남음악인봉사단의 김정훈, 라태양, 최상용, 서정숙 가수 등의 노래공연이 진행되어 흥겨움을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회 발원해 올바른 인연 쌓아가길”

청주여자교도소 합동천도재
8월 1일 교정협 주관으로



수용자들의 인연 영가를 천도하고 올바른 인연을 맺는 합동천도재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열렸다.

청주여자교도소 교정협의회(소장 박정민)과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혜오 스님, 문경 만선사 주지) 주관한 수용자 합동천도재가 8월 1일 봉행됐다.〈사진〉

코로나19로 5년 만에 거행된 천도재에는 130여 명이 동참했다.

혜오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인연 영가를 천도하고 스스로 참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한다”며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보탬이 되고 올바른 인연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불교분과위원회는 청주여자교도소 전체 수용자에게 백설기와 아이스크림을 각각 1000개씩 기증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동구 사찰들, 동구청에 팥빙수 선물

동구청 직원 800명 대상
“지역 공무원 노고 격려”



무더운 여름 지역 행정에 노력하는 광주동구청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광주 동구지역 사찰들이 마음을 모아 시원한 팥빙수를 전달했다.

광주 동구지역 7개 사찰은 (사)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7월 30일 광주동구청(청장 임택)을 방문해 팥빙수 800인분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팥빙수 전달에는 동구청불자회(회장 이안수)도 힘을 보탰다.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동구불교협의회장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 만경사 주지 시공 스님, 문빈정사 주지 법공 스님, 선덕사 주지 담준 스님,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과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의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더운 여름 열린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금은 천진불 세상

백양사, 어린이 명상캠프 ‘연꽃아이’ 개최

8월 2~4일, 경내 일원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가 8월 2~4일 3일간 ‘2024년 백양사 어린이·청소년 명상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연꽃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도법사 지인 스님(포교국장), 영조·혜명·아도 스님을 비롯해 어린이 77명, 지도교사 30명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했다.

명상캠프 첫날 입재식에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듯이 부처님께서도 여러분 모두가 가장 귀중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명상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나도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

7월 27~29일 · 8월2~4일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7~28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엄마, 아빠 나도 쉬고 싶다’를 주제로 금산사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금산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무더위를 식히고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 품에서 잠시 벗어나는 진정한 휴식을 제공했다. 해당 템플스테이에는 매회 △미국 △세종 △전주 △광주 △성남 △군산 △익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2박 3일간 108염주 꿰기, 전통 한지등 만들기, 모악산 숲체험 놀이, 워터슬라이드 물놀이, 붓다볼 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동원사, 어린이 여름캠프 성료

초등생 30여 명 참여해



어린이들이 사찰에서 뛰어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여름캠프가 개최됐다.〈사진〉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는 7월 26~27일 이틀간 경내에서 ‘제3차 동원사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여름캠프는 지역 초등학교 방학에 맞춰 시작됐다. 입재식에는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주지 지장 스님, 지도교사를 비롯해 지역 초등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용관 학생(계림초 6)은 “작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 올해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됐다”며 “올해에도 열심히 놀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고 기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남해지역 초등학생 22명 동참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스님)가 7월 27일 남해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열었다.

경주 향림사 법명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는 22명의 어린이가 동참해 산사에서 색다른 체험을 했다.〈사진〉

이들은 △염주 만들기 △전래놀이 △숲 놀이 △마음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점심 공양으로는 절에서 손수 만든 짜장면이 제공됐다.

용문사는 오는 8월 24일 2차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010)8628-4425 성낙두 경남지사장

“여름날 특별한 추억 각원사서 쌓아요”

7월 27~28일 양일간 경내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며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각원사에 모였다.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7월 27~28일 양일간 경내 영산전(나한전)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 참여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80여 명은 기초예절을 배우고 망원경으로 태양 관찰, 연꽃과 부채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부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찬불가를 부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대원 스님은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며 “신나고 재밌는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만 불광산사서 올여름 500명 단기출가

1988년 시작 올해로 105기
18~65세 신도들 수행정진
오전 5시 반부터 저녁 10시
강경 · 예불 · 운력 일과 참여

박영빈 객원기자


수계를 받는 단기출가 참가자들. 사진출처=불광산총림학원 페이스북

대만불교의 중심점 중 한 곳인 불광산사(佛光山寺)에서 봉행된 단기출가 수도회가 원만히 성료됐다. 지난 7월 29일 대만 불광산사는 500여 명의 신도들이 무사히 단기출가를 마치고 원만히 환계를 마쳤다고 전했다.

대만 불광산사 단기출가수도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됐다. 중국불교계에서는 최초의 단기출가 제도를 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단기출가수도회는 7월 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부와 신도부로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18~35세 사이의 미혼 남녀가 104기, 21일부터 27일까지는 18~65세 사이의 불광산사 신도들이 105기 단기출가로 계를 수지하고 대중스님들과 함께 수행정진했다.

불광산총림학원은 단기출가수도회의 목적을 "전통불교의 의제를 실천하고, 재가신자들이 출가승단의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몸을 가다듬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불광산사 단기출가수도회에 참가하길 원할 경우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2차 면접에 통과하고서야 단기출가를 할 수 있다.

지난 21일 3사 7증의 정식 계단으로 열린 단기출가 수계식에서 전계대화상을 맡은 불광산사 주지 신바오 스님은 500명의 참가자들에게 "출가라는 것은 먼지와 때로 오염된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번뇌의 집, 생사의 집, 삼계의 집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그렇기에 출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참가자들은 수계식에서 단기출가 동안 사용할 가사와 발우, 좌구를 지급 받았으며 계를 받고선 조사당을 참배하여 새로운 출가자들이 탄생했음을 고했다. 한 참가자는 "비록 단기출가이지만 정식계단으로 계를 받아 기쁘다. 계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에 승가가 있고, 승가가 있기에 정법이 머무르는 것"이라며 단기출가를 하게 된 기쁨을 전했다.

단기출가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불광산사의 대중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것과 동일한 생활을 체험하고 익혔다. 오전 5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참가자들은 강경, 예불, 운력 등의 빼곡한 일과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한 여성 참가자는 "재가불교 신자로서 마음으로는 출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단기출가를 통해 스님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팠다. 더욱 삼보를 공경하고 외호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며 환희심을 표현했다.

일주일간의 단기출가가 끝나고 27일 봉행된 환계식에서 참가자들은 사용했던 가사와 발우, 좌구를 반납하고 여법하게 계를 반납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불광산사 부주지 후이자오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모두 지난 며칠동안 부처님 앞에서 세운 서원을 잊지 말고, 돌아가서도 불도를 향한 마음을 견고히 하길 바란다. 단기출가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회향하라"고 격려했다.

불광산사 단기출가회는 대만 불광산사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불광산사 등에서도 개최되며, 참가 기수간의 모임이나 신행단체도 결성되는 등 교계에서도 많은 반향을 이끌어 내고 있다.

中, 불교고전 영어 번역 '활발'

중국불교협회 · 영어교류기지
"정치적이다" 비판 여론도


불교영어 교육과정에 참가한 참석자들. 사진출처=비터 윈터

중국불교계에서 새로운 역경사업이 활발하다. 중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중국불교협회와 불교영어교류기지(佛教英语交流基地)는 현재 광둥성 주하이시의 푸퉈쓰(普陀寺)에서 다양한 중국 불교고전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경사업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의도가 아닌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비판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8월 2일 인권전문 뉴스매체인 '비터 윈터'는 지난 7월 초에 개최된 불교영어교류기지의 '2024 불교영어교육과정'을 집중보도하며 소개했다.

불교영어교류기지는 2017년부터 푸퉈쓰가 진행해온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와 지역당국, 중국불교협회의 승인을 받아 세워졌다. 이 기지는 중국 불교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은 중국 불교고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다. 지난 7월 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영어교육과정에는 중국불교협회의 임원들 외에도 중국내 종교를 통제, 감독하는 통일전선공작부의 직원들도 이 과정에 참석했다. 이러한 참석인원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자 불교영어교류기지의 이사인 밍셩(明生) 스님의 개회사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밍셩 스님은 "중국불교의 홍보와 고전의 번역은 우리 기지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며 이는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밝히며 "중국 불교도들은 일대일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거듭 주장했듯이 모든 중국인들은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에 '중국에서 기술한' 역사와 문화 사상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터 윈터'와 해외 인권단체 등은 "중국이 불교를 이용한 소프트 파워로 불교를 세계종교가 아닌 '중국종교'로 만들려 한다. 또한 이러한 영어교육을 받는 출가자와 학생들은 종교적 신심보다 정치적 의식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환경단체, 불교유적지 보호 요청

해양불교 교두보인 톳라콘다
휴양지 개발 열풍 우려 반발


보호를 요청한 톳라콘다 불교유적 전경.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즈

인도의 한 환경단체가 안드라프라데시 주 불교유적지의 보호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31일 인도 매체 '힌두스탄 타임즈'는 환경단체의 톳라콘다 불교 유적지 보호 요청 소식을 전했다.

중인도 동쪽 해안에 위치한 톳라콘다 불교유적지는 기원전 3세기에 조성된 상좌부 불교 사찰로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 특히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해양불교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칼링가(Kalinga) 왕국이 지배한 곳이다. 1960년 역사적 기념물 및 고고학적 유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톳라콘다 휴양지 개발 열풍이 불며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정부에 톳라콘다 불교 유적의 보호와 복원을 촉구했다.

전 정부 관료이자 환경 운동가 E.A.S. 사르마에 따르면 톳라콘다 불교 유적지는 인도 해군기지 부지 항공 조사 중 우연히 발견됐다. 1978년 주 정부는 톳라콘다의 총 3143에이커(약 4백만 평)의 땅을 불교 유적지로 설정하고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이 발굴에 참여했다. 당시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5년에 걸쳐 120에이커(14만여 평)만 조사했다. 제한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탑, 기둥 4개, 벽 33개, 동굴 231개 등이 발견되었으며 2000년 전 번성했던 상좌부 불교 유적임이 확인됐다. 또한 유적지 남쪽에는 수원 역할을 했던 물탱크 9개, 저수지 2개 등이 발견됐다. 사르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휴양지 개발 열풍을 막지 못한다면 톳라콘다 전역에서 잠재된 고고학적 증거를 의식적으로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경학자 소한 하탕가디는 "최초 발굴 조사가 이뤄진 곳과는 별개로 고대 불교 유적이 톳라콘다 전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톳라콘다 지역 전체를 보호하고 조사해야한다. 2000여 년 전 불교 번성의 증거를 보호해야한다"며 강력하게 톳라콘다 불교유적지 보호를 촉구했다.

전 인도 고고학 조사국 첸나 레디는 "톳라콘다 주변에서 환경이 좋은 해안지대에 집단휴양시설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면서 "인도 고고학 조사국은 인력난에 직면해 톳라콘다 불교 유적지의 발굴 및 보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사르마는 "지하에 숨겨진 유적을 발굴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상 침투 레이더(GPR)등 비침습적이고 비파괴적인 지구 물리학 기술을 활용한 조사도 있다. 유사한 기법으로 보드가야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캐나다 텐트 붕괴…단기출가 체험 중 참변

뇌우 동반 폭풍우 41명 사상
400여 명 공양 중 긴급 대피


31일 캐나다 웨스트록 명상센터에서 발생한 텐트 붕괴 사고 현장에 접근 금지 테이프가 붙어있다. 사진출처=CBC

캐나다 불교 명상센터에서 주최한 단기출가 체험 중 뇌우를 동반한 폭풍우에 1명이 숨지는 등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 1일 캐나다 국영방송 'CBC 비씨'는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위치한 웨스트록 불교 명상센터에서 주최한 단기출가 체험에서 발생한 폭풍우 참사를 보도했다. 뇌우를 동반한 폭풍우로 텐트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은 "7월 31일 오후 5시 30분(현지 시간) 혹독한 폭풍으로 텐트 구조물이 수련회 인파를 덮쳤다.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70대 외국인 여성 1명이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웨스트록 명상센터의 마이클 응우옌 대변인은 "2002년부터 진행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올해 호주·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약 400명의 성인남녀가 발심출가 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자 실내로 긴급 대피하는 도중 텐트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출가자들을 덮쳤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소 9대의 구급차가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대부분은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21일~10월 30일(9박10일)
동참금 | 34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 고창고성, 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는 참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90만원~31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정 : 9월 21일~28일(6박8일)
10월 13일~20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6일
중국 서안관광과 맥적산석굴, 병령사석굴, 돈황석굴등
실크로드 코스에서 중요한 3대 석굴을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13일~18일(5박6일)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양귀비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동참금 | 259만원

일본 교토 사찰 단풍여행 4일
단풍으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11월 19일 출발~22일 도착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 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을 순례하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불교미술 총제적 이해 도울 뼈대 만들겠다”

인터뷰

〈한국불교미술개론〉 개정판 발간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20년 만에 개론서 개정판 발간
法數 개념, 불복장 등 내용 추가
도판사진도 전부 컬러로 리뉴얼
현재 ‘불교조각사’ 집필 매진 중
‘불교미술사’ 계획…개론 집대성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개척자’다. 척박했던 ‘불교미술’이란 외길을 오롯이 걸었고, 그 고된 길을 걸으면서 후대를 위한 수많은 이정표를 남겼다. 작금의 불교미술사학이 현재와 같은 체계를 잡기까지는 문명대 명예교수의 공이 적지 않다.

그만큼 문 소장이 보인 연구 성과는 가히 방대하다. 불교미술 관련 저서만 50여 권, 논문만 300여 편에 달한다. 간다라·실크로드 해외 발굴조사 활로를 연 것도 문명대 명예교수다.

이제는 쉴 법도 하지만, 문명대 명예교수는 팔십이 넘은 노구에도 저서 집필에 여념이 없다. 최근에도 〈한국불교미술개론〉을 세상에 내놨다. 이 책은 1980년 편찬한 〈불교미술개론〉과 이를 수정·보완한 〈한국불교미술의 형식〉을 새로 수정해 간행한 것이다. 거의 20년 만에 리뉴얼한 것이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오래돼서 절판된 개론서를 복사해서 보고 있다’며 여러 군데에서 개정판 발간 요청이 있어왔다. 그간 시간이 안돼 미뤄 오던 것을 올해 초부터 후학들과 집필



과 편집을 진행해 발간하게 됐다”고 집필 계기를 밝혔다. 이어 “〈불교미술개론〉과 〈한국불교미술의 형식〉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내용을 상당히 보완하려 했지만, 시간관계상 의도대로 다 되지는 못했다. 이는 앞으로 수정·보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개론서인 만큼 이 책은 불교미술의 이해부터 건축·불상·불화·공예까지 한국의 불교미술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판 사진들은 전부 컬러로 리뉴얼했으며, 불복장과 같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도 반영했다. 불교의 수(數) 개념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또한 60여 개의 각주와 190여 개의 도판 리스트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현재, 문명대 명예교수는 불교조각의 역사를 망라한 ‘불교조각사’ 집필에 매진 중이다. 이는 1977년 발간했던 〈한국조각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불교조각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해내는 저작이 될 전망이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한국조각사〉는 당시 연구가 미진해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 실제 당시에는 통일신라까지만 기술했다”면서 “40년이 지나 후대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져 계속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벌써 다섯 차례 수정했는데 아직도 보완할 것이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명대 명예교수의 저작 작업은 한국불교미술의 이론적 뼈대를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발간한 한국불교회화사 개론서인 〈한국불교회화사〉와 올해 발간한 〈한국불교미술개론〉, 발간 추진 중인 〈한국불교조각사〉 〈한국불교미술사〉까지 나오면 한국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개론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이번에 발간한 〈한국불교미술개론〉을 비롯해 회화, 조각, 미술사로 이어지는 개론서들을 집필하는 것은 후학과 대중들이 쉽게 불교미술을 이해하고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교미술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뼈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14회 반야학술상에 권오민 명예교수

경량부 연구 업적 높이 평가
10월 6일 반야암에서 시상식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이 주관하는 제14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권오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사진〉가 선정됐다.

권오민 명예교수는 ‘상좌 슈리라타의 경량부 사상’(2019)과 ‘경부비바사’ 관련의 연구물 시리즈와 저서 등 경량부 사상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왔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학자로서의 연구업적은 물론 불교교육과 불교학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오민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6년부터 1988년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강사, 1988년부터 2022년까지 경상국립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9년 ‘구사론’ 상의 경량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30여 년에 걸쳐 경량부의 일실문헌인 상좌 슈리라타(勝授)의 ‘경부비바사(經部毘婆沙)’를 연구 집성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구사론’과 ‘성유식론’을 다시 읽으며 불교 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밝히는 집필과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는 일련의 ‘경부비바사’ 관련 연구물 시리즈인 ‘상좌 슈리라타와 경량부’(2013년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상좌 슈리라타의 경량부 사상’(2019년도 학술부문 세종도서), ‘상좌 슈리라타의 경부비사사 산일문 집성’(2022년도 학술부문 세종도서) 등이 있다. 청송학술상(2007년), 행원문화상 역경부문(2011년), 한국불교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한국불교학술상(2013년), 대정학술상(2016년), 원효학술상 대상(2020년) 등을 수상했다.

시상식 및 수상기념 강연은 오는 10월 6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2회 유심상에 신철규·김보람 등 선정

8월 10일 만해마을서 시상식



신철규 시인



김보람 시조시인



최은미 소설가



조연정 평론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유심상의 제22회 수상자로 신철규 시인, 김보람 시조시인, 최은미 소설가, 조연정 평론가가 각각 선정됐다.

제22회 유심상 심사위원회는 시 부문 수상자 신철규 시인에 대해 “서정시의 퇴적지층을 이어가면서도 경계선 위의 떨림과 파문, 그리고 망설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조 부문 김보람 시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조 문법을 경쾌하게 넘어서는 새로운 발성과 발화가 돋보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소설 부문 최은미 소설가는 “다시 시작된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따른 윤리적 질문”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조연정 평론가는 저서 〈장전된 시간〉을 통해 “차분하고 정갈한 동시에 설득력 있는 비평적 논의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유심상을 주관하는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온 ‘유심작품상’을 올해부터 ‘유심상’으로 변경하고, 각 부문별로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제22회 유심상 시상식은 2024년 8월 10일 오후 6시 30분 강원도 인제군 소재 동국대 만해마을 문인의집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중일 기자

21년 이어진 울릉도 명품축제 ‘회당문화축제’

7월 24일 ‘독도아리랑 콘서트’
김경호 등 공연에 저동항 들썩



7월 24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열린 회당문화축제 하이라이트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 김경호 밴드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진각종이 진각종조 성지인 울릉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2024 회당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7월 24일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울릉도 독도팝스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막을 연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종립 진선여자고등학교 댄스동아리 ‘걸스온탑’이 역동적인 K-POP댄스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 무대는 2015년 회당문화축제 이후 다시 울릉도를 찾은 김경호 밴드다. 김경호 밴드는 ‘사랑했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다시, Fly’, ‘아리랑 목동(with 광개토)’, ‘퀸 메들리’, ‘락앤롤’, ‘금지된 사랑’,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그대에게’ 등의 노래와 불꽃놀이 피날레로 50여 분간 관객들과 호흡하며 더위를 날려 보냈다.

콘서트에 앞서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21번째 찾아온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를 사랑하며, 울릉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이자 진호국가불사로 우리나라 독도를 수호하는 명품축제”라며 “조만간 진각종이 울릉도 사동에 문화와 명상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울릉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4 회당문화축제’는 7월 22일과 23일 도동항 소공원과 남양해수풀장에서 각각 버스킹 ‘울릉아리랑 남(양)도(동) 별곡’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섬 내 작은 마을을 찾아가는 공연 나눔 버스킹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나린, 컨트리음악밴드 더 웜스, 비로자나청소년협회원 김미연 등이 무대를 선사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버스킹에 앞서 회당문화축제 자원봉사단이 진행하는 단주 만들기, 슈링클 키링, 천연비누, 모루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신중일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7~8/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사찰문화 해설가이드북	강계 이지범	중도	7	오늘 담마빠다 한구절(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일력)	일아/김경연	불광출판사
3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8	육조단경(돈황본) 수행자가 의지해야 할 경전,마음	혜능/정화 풀어씀	법공양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고익진 교수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고익진 지음	광륵사
5	불교문화(조계종신도교재4)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초기불교 입문: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늘 부르는 관세음보살, 얼마나 알고 있나



관세음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이여
김호성 지음
불광출판사
1만9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을, 미륵보살이 미래의 중생을 구해준다면 관세음보살은 현세의 고통을 없애 준다. 이처럼 괴롭고 힘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는 보살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괴롭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관세음보살일 것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그토록 간절하게 찾는

관세음보살 제대로 공부하는 안내서
2010년 출간 〈관세음보살〉 수정·보완
각주 통해 오류 바로잡고, 번역 보완



보리암 해수관음상.

관세음보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도 많은 불자들이 관세음보살, 그 이름에서 그리 많이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간 〈관세음보살이여-관세음보살이여, 이하 관세음보살이여〉는 관세음보살을 제대로 알기 위한 책이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중을 위한 관세음보살 안내서다.

책 〈관세음보살이여〉는 저자가 2010년에 출간했던 〈관세음보살〉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출간한 것으로, 각주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번역을 고쳤다. 무엇보다 신간에는 저자의 관세음보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구간이 '중생주의(자력신앙)'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신간에서는 '관세음주의(타력신앙)'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신간에서는 '독자 입장'의 요구사항에 응답했다는 점이 구간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괴로움이 사라지기 전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고통받는 대중을 구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대중은 그 많은 존재의 소리를 듣는 관세음보살을 '천수천안'이라고 찬탄했다. 책 〈관세음보살이여〉는 관세음보살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중생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몸을 바꿔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형태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변화관음'이라 부른다.

저자는 책에서 관음신앙을 믿음·지혜·행위의 세 길로 구분한다. 첫 번째 믿음의 길에서 대중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한다. 구제자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지혜의 길에서 우리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선다. 관세음보살을 롤모델로 삼아 그처럼 자비로운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행동이 더해진 세 번째 행위의 길에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구제행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게 되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한 발 나아간 피조력자와 조력자의 관계에서 관세음보살을 돕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의 초입에서는 우선 관세음보살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요청이 있어야 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마음속에서 느끼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요청의 형태로 우리를 초청하는 부름에 대한 응답이 바로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이다.

부처님은 지혜가 없는 믿음은 어리석음을 크게 키운다고 말씀하셨다. 관세음보살을 바르게 믿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도 관세음보살이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책 〈관세음보살이여〉는 앎에 기반한 믿음을 위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인 김호성 교수(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는 인도철학과 불교에 걸쳐서 100여 편의

신간서 '관세음주의(타력신앙)' 명확히
관세음보살에 대한 관점 변화 드러나
"관세음보살 늘 우리 지켜주고 있어"

논문과 30여 편의 저서를 발표했다. 〈화엄경〉과 〈천수경〉 연구에 이어 관세음보살과 관음신앙으로 영역을 넓힌 뒤 〈나무아미타불〉(야나기 무네요시 저) 번역을 계기로 정토신앙을 공부하게 됐다. 그렇다고 관세음보살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니다. 저자는 그로 인해 오히려 관음신앙의 더욱 깊은 해석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이처럼 인도철학과 한국불교, 일본불교, 문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반세기의 연구와 통찰로 모인 '관세음보살의 모든 것'을 집대성했다.

신간 〈관세음보살이여〉에는 관세음보살이 어떤 존재인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관음신앙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반야심경〉 〈화엄경〉 〈무량수경〉 등 다양한 불교 경전과 발원문 속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서술, 선불교의 시각에서 보는 관음수행, 구마라집이 누락한 게송의 번역을 보충한 〈관음경〉의 새롭고 완전한 해석까지 실려있다.

너무나 많은 명상, 내게 맞는 명상은?



명상맛집
강민지 지음
불광출판사
2만원

세계적 명상가 명상법 꼼꼼하게 분석
각자 상황에 맞는 명상법 25개 소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명상', 명상이 종교적 수행의 범주를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지금의 그 '명상'은 이미 다른 종이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명상의 효과를 말한다. 거기에 뇌과학이나 심리학 등 학문 분야에서 명상이 뇌를 포함한 인간의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까지 언급되며 명상의 화제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자신에게 맞는 명상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됐다. 이제 명상을 시작하려는 초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각각의 명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명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때 초보자가 펼쳐봐야 할 책이 신간 〈명상맛집〉이다.

명상도 음식과 같아서 각자에게 필요하고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세계의 명상을 공부하고 수많은 모임을 진행하면서 초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책을 완성했다. 〈명상맛집〉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명상가들과 그들의 명상법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각각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도하면 좋을지 쉽게 설명한다.

왜 전 세계가 명상일까. 현대인의 삶은 피로감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볼 심적 여유조차 없다. 가끔 스마트폰, 게임, 영상 시청이나 음주, 흡연 등의 오락거리로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질 뿐이다. 이 소모적인 해소 방법은 심적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문제로 이어졌고, 사회 전체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 명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키워드인 것이다. 특히 뇌과학 분야에서의 관심이 주목되는데, 명상이 전전두엽에 자극을 주어 인간의 몸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는 결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명상과 의학을 접목하여, 명상이 우울증을 비롯한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으며,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쓸모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밖에도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일에 명상이 언급되고 있다.

신간 〈명상맛집〉은 저자가 찾아낸 신뢰할 수 있는 명상가들을 소개한다. 잭 콘필드, 타라 브랙, 앤디 퍼디컴과 같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명상가들과 그들의 대표 명상법을 소개하는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상을 하면 좋을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명상이 처음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처럼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명상을,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명상을 추천한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 업무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명상이나 우울증 방지와 같이 건강을 위한 명상법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다. 순서에 상관없이 목차에 적힌 스물다섯 가지의 명상을 둘러보고 관심이 가는 것부터 읽어도 좋다.

저자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등에서 몸소 명상을 익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명상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상 초보자와 경력자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일찍이 파악했다. 책 〈명상맛집〉은 저자가 지금껏 쌓아온 경험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가이드이자 한발 먼저 일러주는 명상 후기이다.

본문은 뇌과학, 대체 의학, 심리학, 종교학 등 갖가지 분야에서 명상의 기본 뼈대를 세운 명상가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선별하여 소개한다.

초보자가 일상생활에서 시도할 만한 접근성 좋은 명상법부터 시작하여 경력자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고 실험실까지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부록으로 제공되는 '명상맛집 디저트'와 '굿바이 키트'는 독자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명상 모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방식을 알려 준다.

박재완 기자

삶의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내 곁엔 관세음보살이 계시기에!

관세음보살이란 어떤 존재이며, 관음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관세음보살의 모든 것!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시고 모두 벗어나게 할 것이다"
-『법화경』 제25「관세음보살보문품」

『관음경』 전문 번역 수록

관세음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이여

김호성 지음 | 304쪽 | 19,000원



당신은 누구시길래
늘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나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나보다 바쁘고 열정적인
전 세계의 성공한 유명인들은
왜 명상을 선택했을까?

넘쳐나는 명상의 세계 속에서
길을 헤매는 당신을 위한
명상계의 미쉐린 가이드!

세계 최고 명상가들의
25가지 명상 레시피
명상맛집

강민지 지음 | 296쪽 | 20,000원



한국·중국 茶詩 정수 일백 편



차시 일백수
송재소 역해
돌베개
3만6천원

한국 · 중국 대표 차시 113수 소개
초의 '동다송' 정약용 '걸명시' 등
한국의 대표 차시 57편 소개해



초의선사가 머물며 〈동다송〉을 지었던 일지암의 차밭.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1. 하늘과 땅이 좋은 나무를 귤의 덕과 짝지우니
2. 천성을 바꾸잖고 남국에서 나는데
3. 빽빽한 잎은 눈과 싸워 겨우내 푸르고
4. 흰 꽃은 서리에 씻겨 가을 송이 피우네
5. 고야산의 신선인 양 분 바른 듯 고운 살갗
6. 염부의 단금인 양 같은 가지에
7. 이슬에 맑게 씻긴 푸른 옥 같은 가지에
8. 아침노을에 젖어 있는 물총새 혓바닥"

초의 선사의 '동다송' 일부다. 차시(茶詩)다. 차시(茶詩)는 차를 소재로 한 시이다. 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차를 소재로 한 시를 써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시대에 차가 들어온 이래 수많은 문인 학자가 차시를 써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차를 예찬하는 시를 쓴 것은 차를 단순한 기호식품 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간 〈차시 일백수〉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차시 113수를 소개한다. 번역과 주석, 해설을 달았다. 그리고 부록으로 '한국의 차 문화'와 '중국의 차 문화'를 수록했으며, 8편의 차 관련 글을 '참고'로 수록하여 차에 관한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게 했다. 한국시는 이규보 등의 시 57수가 실렸고, 중국시는 이백 등의 시 56수가 실렸다.

'차'를 하나의 코드로 삼아 한국과 중국의 시들을 골라 읽으면 이들 사이의 영향과 문화의 공유 등을 볼 수 있는데, 차 문화로는 후발 주자인 한국은 대체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조선 후기에 오면 차가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대략 두 가지의 효능을 경험한 듯하다. 첫째, 건강과 관련한 차의 효능이다. 차는 잠을 쫓고 숙취를 없앨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조태채는 차가 인삼만큼 귀하다고 노래했다.

둘째, 차를 수양의 방법으로 삼았다.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신선이 된 듯하다는 표현이 시에서 자주 나온다. 특히 스님들 사이에서 차가 성행했는데, 중국 선종의 6조인 혜능이 승려의 수행을 돕는 도구로 차를 음용한 이래 차를 가꾸고 마시는 것을 일종의 구도(求道) 과정으로 여겼다. 이른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이다.

한국의 경우, 신라 선덕야왕(재위 632~647) 때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 경덕왕(재위 742~765) 때 충담 스님이 남산의 미륵불에 차를 공양하고 왕에게도 바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차가 스님들 사이에서 음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억압을 받았다. 사찰과 스님들 중심으로 발전해 오던 차 문화가 크게 위축됐다. 조선의 차 문화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크게 쇠퇴했지만, 스님들과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18세기 조선에서 차 문화는 중흥기를 맞는다. 면면히 이어오던 조선의 차 문화를 다시 일으킨 인물은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은 젊은 시절부터 차를 즐겼는데, 강진 유배 시절에 만덕사 혜장 스님과 교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차를 연구하면서 즐겼다. 다산이 혜장 스님에게 차를 보내달라고 쓴 이른바 '걸명시'(149쪽)는 너무나 유명하다.

조선 후기 차 문화의 중흥조가 다산이라면 차 문화를 완성한 사람은 초의 선사다. 1809년 강진에서 다산을 만난 후 본격적으로 차를 연구했다. 한국 차 문화사에 길이 남을 〈동다송〉을 저술하고 차의 걸작 '초의차'를 탄생시켰다.

중국에는 일생을 바쳐 차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고, 차가 좋아서 늘 차를 마시면서 차를 예찬한 '차 마니아'도 많다. 청나라 건륭 황제는 차를 좋아해서 "임금에게는 하루라도 차가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차시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느낀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중국은 차의 본고장인 만큼 문인이라면 누구나 차에 관한 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백, 백거이, 두목, 소식 등 수많은 문인들의 차시가 있다.

고단한 사바 위안하는 노래, 스님들의 詩



승려시집 11권
오심 스님 외 지음
차의 세계
1만5천원

승려시인회 회원 24명의 시 196편

승려시인회(회장 진관 스님)가 8월 7일 〈승려시집〉11집을 발간했다. 11집에는 회원 24명의 작품 196편이 실렸다.

승려시인회는 1971년 3월 14일 대구 파계사에서 무산(오현) 스님을 회장으로 20여 명의 스님들로 발족했고, 승려시집 4집까지 발간했으나 이후 활동이 중단됐다. 1993년 진관 스님을 필두로 한 제5집 〈피안으로 가는 수레〉를 재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연들과의 만남과 만남에서 주고받았던 '말 아닌 말과 글 아닌 글들'이 도반들에게는 탁마의 채찍이 되었고, 고단한 사바를 위안하는 노래가 되어 〈승려시집〉이라는 기록으로 묶어진다.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일체가 교외별전이요, 팔만사천의 방편이다. 그래서 〈승려시집〉 역시 중생의 근기에 따라 교외별전의 전승이요, 팔만장경에 보태는 한 권의 경전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풍요롭게 장엄하리라 확신한다."

진관 스님의 생각처럼 11집에 실린 시들은 많은 인연 속에서 주고받았던, 말이면서 말이 아니었고, 글이면서 글이 아니었던, 불가적 언어의 문법으로, 독자들에게는 탁마와 위안의 노래로 들려온다. 서로 다른 사유와 문체로 사바를 바라보고 부처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써내려간 시들은 팔만장경에 보태는 한 권의 또 다른 경전으로 다가온다.

불교에서는 말과 글로 온전히 표현하고 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승의제라 하고, 승의제를 설명하는 언어 등을 세속제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말과 글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리의 범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승의제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한 말씀도 하신 바 없지만 세속제로서 팔만대장경이 있게 된 것이다. 승려시인회 회원이자 여래문학회 회장인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에 따르면, 〈승려시집〉 역시 세속제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같은 단어도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승려시집〉에 실린 작품 하나하나가 스님들의 수행과정을 세속의 언어로, 때로는 팔만장경의 말씀을 빌려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언어 속에 숨어 있는 수행과 또 다른 형식으로서 전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자

'억불' 넘어 불교사상 이어간 선지식들



함허기화·청허휴정·경허성우 불교사상의 계승자들
김용태 편저/ 창비
2만2000원

창비 한국사상선 제4권 〈함허기화·청허휴정·경허성우: 불교사상의 계승자들〉은 조선 시대 숭유억불 정책 하에서 시대와 공존하고 스스로의 활로를 찾으며 불교의 정통을 계승하고자 한 세 선지식의 글을 모았다.

특히 불교 배척의 기세가 가장 심했던 조선 초기에 불교의 가치를 지키고 선종과 교종의 틀을 지킨 함허 기화 스님, 임진왜란 중에 승려들을 이끌고 구국 항쟁을 벌임과 동시에 수행 체계를 새로 정립해 조선 후기 불교의 지향을 제시한 청허 휴정 스님, 근대 이행기에 선의 중흥을 도모한 경허 성우 스님의 삶과 생각을 담아냈다.

함허 기화는 단순히 자기 종파에 머무르지 않았고 불교가 선종과 교종으로 나뉜 근본적 원인을 면밀히 탐구했다. 또한 유교와 불교의 공존을 주장하면서, 당시 불교 무용론의 분위기 속에서도 불교가 맡아야 할 역할이 있음을 설파했다. 불교가 유교의 통치 이념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도 부합하는 종교임을 꾸준히 알린 것이다.

불교사상과 관련해서 청허 휴정은 선종과 교종 간 갈등을 타개하고 두 전통을 아우르고자 했다. 그는 간화선을 통한 선과 교의 동시 수행, 즉 선교겸수를 권했고, 이는 이후 한국 불교계에 굳건히 계승했다.

근대 전환기에 활동한 경허 성우는 대중 앞에서 항상 온화한 얼굴로 설법했으며, 생각이 같다면 남녀노소와 귀천을 불문하고 참여를 이끌며 선의 일상적 실천과 대중화를 추구했다.

편저자인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교수는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불교계는 시대와 공존하면서 스스로의 활로를 찾았고 선과 교, 신앙과 의례 전통 등의 복합적 계승이 가능했다"면서 "이 시기 간화선 수행과 선종 우위의 인식, 교학의 전승과 화엄의 중시, 염불 정토 신앙의 확산 등 조선불교의 내적 정체성이 형성됐고, 이는 현재 한국불교의 원형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조선 불교의 원형을 만들어내고 지켜온 것은 함허 기화, 청허 휴정, 경허 성우 등의 선지식들이다. 이 책에 수록된 선지식의 저작에서 불교가 한국 사상사 전반에 미친 영향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신중일 기자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 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아비달마 수행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
초기경전과 아비달마 논서를 분석하여, 유부의 수행도론은 5온에 대한 단계적 통찰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유부의 이론과 수행의 전모를 조망하였다.
김경희 지음/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초기불교 수행자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
율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초기 인도불교 승가에서의 가족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관념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흔드는 파격적인 연구서!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신국판/무선/40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부처님 같아지는 법, ‘팔정도’에 있다”



진옥 스님은… 1975년 명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보성 스님에게 계맥을 전수받았다. 1999년 달라이라마에게 보살계와 금강승계를 받고 법제자가 됐다. 보문복지회 초대 이사장으로 18년 동안 여수 지역 불교사회복지사업을 이끌어왔다. TV, 유튜브를 통해 대중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BBS불교방송에서 강의한 〈금강경〉 해설을 묶어 〈설법집 금강경〉을 비매품으로 발간해 1만권을 전남지역 불자들과 시 · 청취자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으로 달라이라마에게 받은 티베트대장경 역경에 매진하고 있으며, 여수 석천사 주지로 주석하며 전법 · 포교하고 있다.

여수 석천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에 창건됐으니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을 흠모한 승장 옥형(玉泂)스님과 자운(慈雲)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큰 바위 아래 샘 하나가 있어 ‘석천사(石泉寺)’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대웅전과 해수관음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는 소박한 사찰이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승(義僧)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의승당이 있다. 의승당 주련에는 ‘연꽃 잡은 손으로 호국의 기치 들어/왜인의 침략야욕 파사현정(破邪顯正) 하셨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석천사에 주석하고 있는 진옥 스님을 친견했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을 좋아해서 나무로 조각한 고행상을 모셨다. 티베트에서 모셔온 고행상을 담은 티베트 불화 탕카도 걸려있다. 이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닮고 싶은 진옥 스님의 결연한 의지가 읽혀졌다.

진옥 스님은 선지식들에게 두루 가르침을 받았다. 명선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송광사 방장 보성 대종사로부터 율맥을 전수받았다. 1999년 달라이라마로부터는 보살계와 금강승계를 받고 법제자가 됐다. 스승에 대한 이야기부터 물었다.

“승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세 분의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부모와 같이 키워준 사람을 은사라 하고, 계율의 기준점이 돼 주시는 계사라 합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깨침으로 이끌어 주는 분을 법사라고 합니다. 법사는 법의 스승이지요. 달라이라마 존자는 저에게 법의 스승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보살계, 금강승계를 주신 것은 수행의 단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로부터 가장 닮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보리심을 발휘해서 일체중생을 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란다 대학의 전승입니다. 2000년 전에 나란다 대학에서 했던 그대로 대승불교의 경전을 배우고 수행하는 그 방법이 티베트에 전수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진옥 스님은 “법제자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른스님만큼 행위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팔정도에 대한 법문을 이어갔다.

“우리가 부처님을 대할 때도 정견, 정사유 등 팔정도를 따르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은 부처님과 생각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정견이란 ‘부처님 견해와 내 견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정사유란 부처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내가 부처님처럼 사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정(正定)은 바른 선정입니다.”

진옥 스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선을 하면 번뇌가 끊어지게끔 된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바르다=부처님 생각 같다’ 의미
부처님 같이 사유 · 선정하는 법
‘팔정도’ 담겨… 수행으로 실천을

은사 명선 스님 문하로 출가해
보성 스님에게 계맥 전수 받아
1999년 달라이라마 법제자 돼
“선지식과 생각 같아지려 노력”

“다른 수행법은 번뇌가 좀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팔정도에는 부처님께서 사유하신 방식대로 사유하고 부처님께서 선정을 행하신 방식대로 선정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불자라면 부처님과 생각도 같고 행동도 같아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다’는 이야기는 ‘부처님과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른 점이 있지만 부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팔정도의 수행입니다.”

진옥 스님은 나란다 전승의 불교를 티베트 선지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 25년이 됐다.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대중들에게 법의 은혜를 입었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다람살라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양로원을 후원하기 위해 2019년에 〈반야심경〉 사경 전시를 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의 방편으로 〈반야심경〉을 사경했기에 전시를 할 수 있었다. 2020년에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선(禪), 열반의 노래’ 개인전을 가졌다.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병원에도 갈 수 없는 10만 티베트 난민들을 위한 전시였다. 진옥 스님의 자비행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

진옥 스님에게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라는 구절이 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니 우리 몸도 허망한 물질인데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내 스님은 “실상을 정확하게 보라”는 답을 내어줬다.

“몸이라는 것은 부처님 몸이건 내 몸이건 저 지옥의 몸이건 천상의 몸이건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고 업을 따라서 윤회합니다. 모두 다 허망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관찰한다면, 모든 상이 실제 모양이 아닌 줄 안다면 바로 즉견여래이며 공성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어요.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실상,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허무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이 몸이라는 것이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 몸이 아니고서는 여래를 이룰 방도가 없으니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줬다. 진옥 스님은 사람 몸 받았을 때 열심히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중생들이 윤회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천상까지 다 합해 놓고 보아도 사람의 몸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수행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난 업에 의해 이 몸이 생긴 것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있어야 사유도 할 수 있고 반성도 할 줄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사난득(四難得)’이라 하여 육도 중생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장부(丈夫)가 되기 어렵고,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고, 가르침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깨닫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하고 공성으로 들어가니 굉장히 소중합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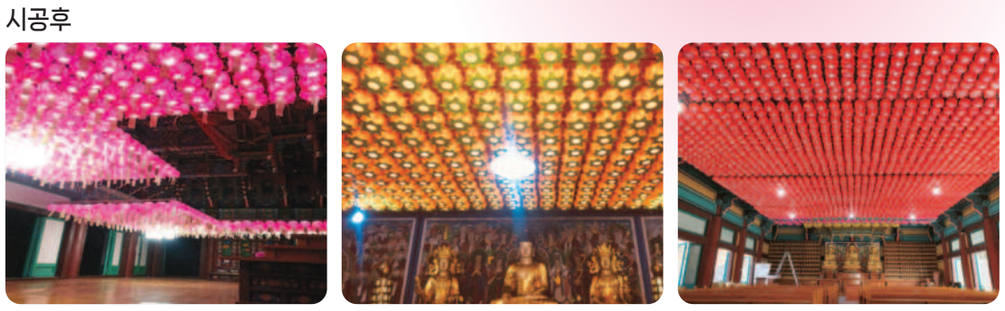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지상백고좌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행복해지고 싶은가? 불행 요소부터 제거하라”

12면에 이어

평소 과음해 위장병이 생겼다면
절주 · 단주해야 건강 되찾듯이
불행 제거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 악업부터 짓지 않아야 한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진옥 스님이 이마를 맞대고 예를 표하고 있다. 진옥 스님은 1999년 달라이라마에게 보살계, 금강승계를 받고 법제자가 됐다.

진옥 스님은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을 맡고 있다. 1959년 달라이라마는 중국의 폭정을 피해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하며 ‘티베트대장경’ 세 질을 가져왔다. 달라이 라마는 그중 한 질을 진옥 스님에게 주었다. 귀한 책이기에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달라이라마가 ‘그 책을 모셔두지 말고 한글 번역 작업을 하라’는 당부에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진옥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간직한 티베트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원음을 듣는 것 같아 행복하다. 다음 생에도 달라이라마가 주석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태어나 못다 한 공부를 더하고 싶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내 필자가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던졌다. 진옥 스님은 막힘없이 답을 내어 줬다.

“불교의 공성은 어렵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수보리는 ‘여래는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할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도 모두 번뇌를 없애기 위해 하신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방편의 말씀입니다. 어떤 진리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어요. 이 우주도 거듭 변화하잖아요. 만약에 결정되어진 법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경전을 말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반야 지혜는 진리이니 영원히 고정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 않아요. 선과 악, 부처와 중생, 번뇌와 열반 여기에 실체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설명하기 위한 상대적인 용어이니 말에 속지 말하는 것이지요. 결정되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옥 스님은 “부처님 말씀이나 또는 조사 스님 말씀을 법의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 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다. “무아인데, 윤회하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그 말은 불교 철학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아(我)가 있다면 윤회를 할 수 없지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면 변하지 않는 절대성의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브라만교의 상키야 학파가 불교한테 만방으로 깨져버린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절대적인 아(我)가 있다는 것 때문에 깨어졌어요. 절대적인 아(我)가 있다면 불변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절대적인 무엇이 있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20조개가 넘는 세포가 계속 늙어가고 죽고, 새로 생성되고 그렇게 변화합니다.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오늘로 변화하지 못해요. 영원한 실체가 없기에 계속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좁게 보면 하루하루를 볼 수 있겠지만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 있지요. 여기에서 좀 더 넓게 보면 전생과 이생, 다음 생으로 확대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될 수 있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중론〉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삼법인(三法印)에도 제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며, 열반적정하다고 나오듯이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자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셨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니 집착할 그 무엇이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스님께서 번역하신 〈입보리행론〉에 ‘어떤 이가 나를 보고 나쁘다고 말하거나, 다른 이를 시켜서 해치도록 시키거나, 조롱하고 하대하며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깨달음의 씨앗 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은 바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깝고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괴로움을 주지요. 보살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인욕을 가르치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에게 역행하는 이가 실은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역행하는 역할을 맡은 보살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모두 아집 때문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보듬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스님은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 보살과 보리심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갔다.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한다.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시켜주겠다고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보살이다. 보리심은 일체중생을 윤회의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이다.

“임진왜란 때 스님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 백성을 구하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지만, 한 번도 비석을 세워달라, 이름이 나게 기록으로 남겨달라,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이것을 두고 보살의 수행이라 합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 주는 인과를 지으면서 맨날 고통 속에서 또 생사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갈망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여쭈었다.

“행복과 고통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고통도 실체가 없어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해진 게 없어요. 행복 수행론이라는 것은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거해 나가면 뒤에 편안해지잖아요. 이것을 이름하여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괴로운 것도 실제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어났다가 업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짓지 않으면 고통이 없겠지요. 술을 먹어서 위장이 나빠진 사람은 술을 끊으면 병이 낫겠지요. 고통도 그런 것입니다.”

스님께 구체적인 실천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여쭈었더니 “첫째는 오계를 잘 지키는 것이며, 오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절에 백 년을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라고 했다.

“오계를 잘 지키라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오계도 지키지 않으면 죽을 때가 더 부담스럽지요. 나쁜 짓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기심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진옥 스님은 BBS 불교방송 TV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반야정로〉 법문을 한다. 그리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무명을 밝히고〉 프로에서 불교신행 상담과 경전강의를 하고 있다. 석천사에서는 〈금강경〉 〈입보리행론〉 〈보살 37수행론〉 〈법화경〉 〈육조단경〉 〈수심결〉 등 여러 경전을 강의했고, 지금도 경전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 공부를 게을러서는 안된다는 스님의 신념은 확고하다.

진옥 스님은 BBS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에서 〈금강경〉 해설을 하셨고, 그것을 책으로 펴냈다. 스님은 〈설법집 금강경〉을 1만 권을 인쇄해 전남 지역과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어서 화제가 됐다. 그렇기에 스님은 모든 이들에게 간곡히 “경전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꼭 배워서 정진하세요”라고 당부한다. 수행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 내리는 당부이기도 하다. ‘불자라면 부처님과 생각이 같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수행’이라는 진옥 스님의 가르침은 진중하다.

문윤정 /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⑯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한줄 요약
경주 남산 삼릉계곡 오르막을 따라 오르면 6m 마애불상을 만난다. 선각과 양각을 조화시킨 양식이 특징인 마애불이나 보존 관계로 가까이서 참배가 어렵다. 불교문화유산은 보존보다 참배가 우선돼야 한다.



남산 자연과 조화 이룬 마애부처님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은 2012년 스님들이 받는 연수 교육으로 경주 남산에 갔을 때 뵌 것이 처음이다. 이때 안내와 해설을 해주던 남산 연구자 선생님이 접근금지 구역에 있는 마애불상인데, 스님들이 연수 교육을 하는 것이기에 들어온 것이라고 했었다. 접근금지인 이유는 마애불상의 바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상 부근의 마애석가여래좌상과 부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풍경은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전부일 정도로 멋진 자리에 있는 불상이다. 그렇기에 2023년에는 신도들과 남산 순례를 갈 때부터 참배 신청을 하려 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경주 남산 사무실 등 여러 곳에 전화 걸었는데, 모두 금지구역이라서 참배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꼭 참배시켜드리고 싶어서 국가유산청에도 전화를 걸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까지 혹시나 전화를 걸어 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삼릉계곡길 정상 바둑바위에서 금오봉 정상으로 가다 보면 멀리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모두 그곳에서 '와 멋지다'란 감탄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을 뵙는 전부였다.

올해 봄 신도들과 순례를 할 때 일이다.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을 지나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긴 오르막의 산행을 해야 한다. 힘들게 걷다 어디선가 염불소리가 들려오면 상선암에 다 온 것이다. 상선암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법당을 지은 암자다. 나는 개인적으로 걱정과 안타까움이 큰 암자로, 지붕은 함석 기와를 올렸고 법당은 작고 초라하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은 경주 남산의 사찰 기준을 경주 남산의 품격에 비해 초라한 상선암을 보면서 세울까 싶기 때문이다. 조계종 사찰이면 불사 좀 하라고 항의라도 하겠는데 종단 소속이 어딘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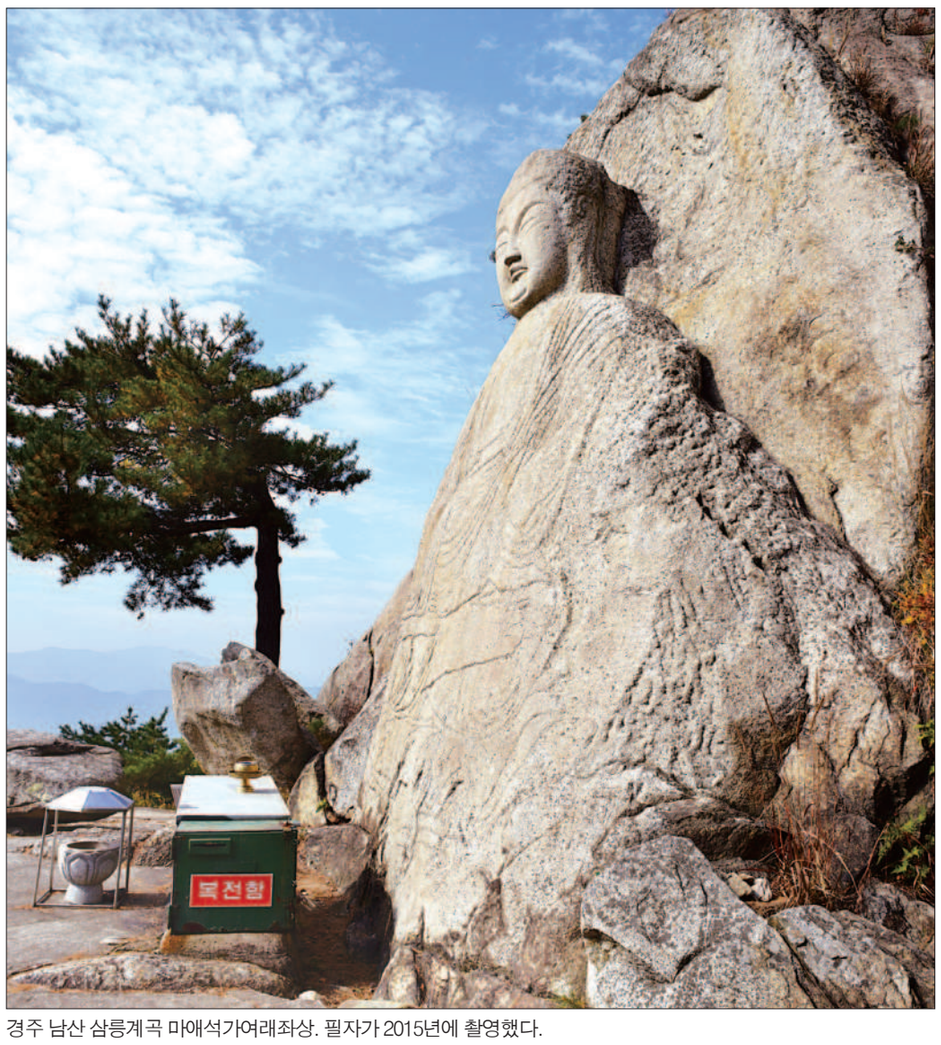
상선암 옆 돌아가는 길가에 옷 주름이 새겨진 마애선각보살상이 깨져 엎어져 있다. 세우면 6m는 되는 보살상인데, 길가에 방치되고 있다. 어찌 됐건 이때 일이다. 신도들과 순례를 하면서 힘들게 상선암에 오르고 부처님오신날 전이라 법당에 들러서 참배하고 등도 올리고 있었다. 신도들과 이야기 나누던 상선암의 보살님이 웃으면서 말을 해주는 것이다. "스님, 신도들과 마애불상 참배하고 가세요.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관리자가 누군지 모르고 법적으로 어떤지도 모르지만, 신도들과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삼배와 반야심경 독송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 보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참배할 수 있도록 마애불 앞 공간을 다시 잘 정돈하면 될 것 같았다. 떨어질 바위가 걱정이라면 마애불상과 거리를 좀 더 물려서 참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면 될 일이다.

올해 7월 중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연수교육을 받을 때였다. 한 전문가가 석굴암 3D 입체영상 구현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고승과의 만남에 관한 말을 하였다. 불교문화유산을 3D 입체영상으로 구현해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과 더불어서 옛 고승의 모습을 구현해서 만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다. 개인적으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불교문화유산은 관람이

삼릉계곡 오르막 따라 오르면
바위 위 새겨진 6m 불상 만나
선각, 양각 조화시킨 양식 눈길
출입 자유롭지 않아 참배 어려움
불교문화유산 예경이 우선돼야



경주 남산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필자가 2015년에 촬영했다.

먼저가 아니라 참배가 먼저라는 것이다. 고승은 더더욱 그렇다. 성보를 3D로 구현하는 것은 전문 연구자의 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다.

사진 자료보다는 3D의 입체자료가 연구하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유산에서 일반사람들에게 보기 쉽게 또는 접근이 쉽게 하는 목적의 3D 형상 구현은 큰 의미가 없다. 불교문화유산은 직접 성보가 있는 장소에 방문하는 순례와 참배의 의미가 큰 것이다.

불교문화유산인 성보는 직접 만나는 순례와 참배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삼릉곡 석조여래좌상이 접근 금지되어있는 것도 그렇고, 열암곡 마애불상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도 성보의 가치에 관하여 관람을 위한 보존의 문화유산으로 접근하는 시선 때문일 것이다. 열암곡 마애불상의 입불을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역사'라는 주장이며, '원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원은 문화유산 파괴'라는 주장이다. 그대로 놔두고 관람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지금의 모습도 잘 보존해서 후대의 자손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역사라는 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을 묻어두고 참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오류일 수 있다. 무엇보다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과 열암곡 마애석불입상은 불교 성보 문화재로 보존이라는 가치보다 참배와 순례의 가치가 앞선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과 마찬가지로 폐사지의 보존이란 이름의 방치가 있다. 폐사지의 보존이란 의미는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존이란 이름의 방치일 수 있다. 한국의 대다수 불교 폐사지는 복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유명한 폐사지는 경주 황룡사지가 대표적이다. 황룡사는 643년 한국 불교의 틀을 세운 자장(慈藏, 590~658년)율사가 선덕여왕에게 건의하여 세운 80m 높이의 목탑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황룡사의 9층 목탑을 모른다면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일 것이다. 황룡사의 웅장한 금당과 장육불상과 9층 목탑은 1238년 몽골의 침략으로 불에 타서 사라진다.

황룡사의 원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모형은 황룡사 역사문화관에 만들어져 있다. 지금까지 황룡사에 관한 연구는 '황룡사연구총서'가 2022년 23권이 발간되었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광활한 황룡사 폐사지에는 옛 석축만 남아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는 황룡사 터에 가면 옛 모습이 그려질지 모르지만, 대다수 일반인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기에 황룡사와 같은 폐사지는 순례객의 발길조차 닫지 않는 방치된 불교 문화유산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황룡사지 바로 위 분황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에는 넓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황룡사지에 가려면 역사문화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방문객 없이 텅 빈 상태이다. 특히나 황룡사 주차장은 무료인데 분황사는 참배객의 버스나 자동차로 가득 차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분황사는 불교 성보인 불상과 불탑이 순례객의 참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룡사지는 불교 성보인 참배의 대상이 없기에 순례객의 발길을 끌지 못하는 것이다.

황룡사 구층목탑이 복원 재현되어 있거나 금당의 불상이 복원 재현되어 존재한다면 지금처럼 황량하지 않을 것이다. 황룡사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황룡사의 복원을 반대하는 이유의 근거는 원형을 정확하게 모르기에 복원을 빙자한 파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과 학문적 연구의 성과는 황룡사의 복원과 재현에 충분하다. 복원과 재현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합리적 추정으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최선의 추정이란 타임머신이나 설계 도면이 없는 한 사실적 모습을 명확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폐사지는 그 모습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폐사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폐사지의 가치보다 복원했을 때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80m 높이의 목탑이 없으며 황룡사에 버금갈 전각의 사찰이 없기 때문이다. 복원된 황룡사는 한국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사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자에게는 순례와 참배의 대상이 되어 줄 것이기에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또한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지만, 불교 문화유산은 성보의 가치가 앞서는 참배와 순례의 대상이어야 한다.

서남산 삼릉계곡 가장 높은 곳에서는 중생을 굽어보는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이 있다. 거대한 바위에 높이 6m의 부처님 몸을 선각으로 새겼으며, 부처님 얼굴은 입체적으로 조각하였다. 몸은 남산의 바위에 스며있는 자연과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얼굴은 양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나 싶은 마음이 든다. 부처님 눈은 반쯤 감았으며 이목구비는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오른손은 가슴 위에 두고 왼손은 가부좌 튼 다리 위에 놓고 있는 선정인의 자세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대좌는 위로 핀 연꽃인 앙련의 연화대좌이다. 조각의 완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남산이란 자연과의 조화로 부처님을 모신 마애석가여래좌상이다. 이러한 선각과 양각을 조화시킨 양식은 고려시대에 유행하는 거대한 마애불상의 조성으로 이어진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5호 | 15 | 전면광고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자경문》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11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 주차가
- 매가 : 10억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60평 외
- 매가 :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탑 2기, 석등 2기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 깨끗한 목조법당
- 매매 7억5천, 전세 4억
- 부동산 사절

010-8078-2102

사 찰 안 내

- 매매가 70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사찰(급)안내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하저길 330-3 대흥사
- 가액 : 4.5억 (2.5억 대출)

바다가 보입니다.
스님 건강상의 이유로 급매합니다.

010-4746-1599

사 찰 안 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4길 144-17
- 대지 : 2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전망 좋고 신도 많음.
- 현재 운영 중,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대출 5천 안고 2억 8500만원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동서울에서 약 106km 1시간 30분, 동홍천에서 17km 25분
- 총토지면적 546평
-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토굴이나 개인 선방용 추천
- 가액 1억8천

010-8833-6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 230평
-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 4억6천

010-5204-8176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95호 | 16 | 전면광고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적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제1기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모집공고
(팔공산 범음범패 교육원)

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도 가능
- 불교신자 또는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초기반 도량석, 종성, 예불, 삼보통청, 예불의식(법회 집전 의식)
- 전문반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 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목탁, 요령, 징, 북, 바라, 작법, 의식이론 등)

교육일정
- 초기반 개강일 2024. 8. 26(월) / 수료일 2025. 1. 21(화)
- 전문반 개강일 2024. 8. 27(화) / 수료일 2025. 1. 21(화)

교육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법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접수 및 문의처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
(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통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지금은 지금, 일상이라는 화두



이안의 Media In Buddha

㊺ 영화 〈퍼펙트 데이즈〉

나라를 새로 세우는 큰일을 함께 한 이성계가 무학 대사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화 가운데 하나. 하루는 이성계가 무학 대사에게 "내 눈에는 대사가 돼지로 보입니다"라고 했더니 무학 대사는 태조 이성계에게 "제 눈에는 전하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여워하거나 당황하라고 건넨 수작에 저런 답을 들은 이성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무학 대사는 천역덕스럽게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인다"고 답했다. 같은 것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 그리고 같은 상황도 격에 따라 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퍼펙트 데이즈〉도 그런 예가 될만한 영화다.

모름지기 극영화란 꽤 별스런 사건의 기승전결이 있어야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의 별스런 점을 굳이 찾아야한다면 썩 별스런 사건이 없어 보이는 것이 그나마 별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누군가 '〈퍼펙트 데이즈〉가 어떤 영화야'라고 묻는다면 영화의 등장인물과 줄거리, 배경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유난한 관심을 갖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로 엮어낼 만한 기승전결의 서사가 없고, 서사물의 주인공이 겪는 사건을 통한 성장이나 변화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 영화를 설명할 거리는 나름 굵직굵직하다. 제목 못지않은 '퍼펙트'한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리라는 보증이 국제영화제 수상 이력이나 감독과 배우의 명망을 더하는 영화계 인심으로 볼 때,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독일 감독 빔 벤더스가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 야쿠쇼 코지를 주연으로한 합작 영화인 〈퍼펙트 데이즈〉는 딱 어떤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막연히 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영화일 것이다.

칸 영화제에서 감독은 종교인들이 선정하는 에큐메니컬상과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남우주연상을 받은 이 영화에서 어떤 종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구도' 또는 '수행'의 미학을 펼쳐 보인다. 그러면서도 딱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장면, 듣고 싶어 할 소리, 느끼고 싶어 할 감정들을 정교하게 연출해서 얼핏 일상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허투루 새어나가는 우연 하나 들어설 틈 없이 꽉 짜여 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 한 장면 갈무리.

도쿄 공중화장실 청소부 일상 담아
도시 위생 매진…구도자 같은 모습

이 영화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개최되었던 2020 도쿄 올림픽에 맞춘 홍보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위생'이 전세계적 화두이던 시기에 사람이 모여도 되는가를 걱정할 때, 도쿄의 공중화장실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기획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것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올림픽이 열리기에 안전한 도시로 도쿄를 알려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더럽다고 여겨지는 화장실조차 아름답고 깔끔하니 도쿄 방문을 꺼리지 말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을 무대로 단편 영화와 사진집을 제작하려는 고도의 문화 마케팅을 위해 빔 벤더스에게 단편을 의뢰했던 것이다.

제안받은 단편이 아니라 장편을 찍기로 한 빔 벤더스 감독은 3주 만에 시나리오를 쓰고 17일 만에 촬영을 마쳤다. 엄청난 세트나 로케이션 다 필요 없고 안전한 일상, 그것이 바로 '퍼펙트 데이즈'라고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다고 할까.

주인공 히라야마는 도쿄올림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다. 바로 도시의 위생. 그 위생의 최전선은 공중화장실. 히로야마가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분재에 물을 주고, 작업복을 차려 입고, 온갖 청소도구를 차에 싣고 도시 곳곳의 공중화장실을 찾아가서, 최첨단 장치로 관리되는 화장실들을 뽀득뽀득 정갈하게 관리하는 모습은 경건하기 이를 데 없다.

히라야마는 그야말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위해 헌신하는 구도자와도 같다. 혼자 살고, 하루 종일 흐트러지지 않으며,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시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쓱 도움을 주면서도 가까워지려하지 않는다.

일할 때는 자동차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자전거로 도쿄 구석구석을 누비는 히라야마를 따라가다 보면 카메라는 도쿄 전체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된다. 출근길에는 주택가에서 도심지까지 뒷골목부터 해안도로까지 두루 보여주고,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면 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까지 도쿄에는 얼마나 많은 화장실들이 개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노멀이던 당시의 글로벌 지침도 잘 지켜진다. 같은 화장실 청소업체 직원끼리도 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는다. 각자 다른 칸에서 따로 구역을 책임진다. 히라야마는 혼자 사는 초로의 남성이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더 안전한' 인물이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을 쓰는 빗질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지만 그 이웃과 눈인사 말고는 별다른 접촉도 하지 않는다. 일을 마치면 공중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지만 거기서도 다른 이용객과 서로 등을 밀어주는 정도의 사소한 접촉도 하지 않는다. 상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스포츠 중계를 보며 음식을 사먹을 때도 혼자 주문해서 따로 먹고, 쉬는 날 찾아가는 단골 선술집 여사장의 식당에서 각자 따로 온 단골들끼리 기타치고 노래하며 나름 여흥을 즐길 때도 절대 합석하지 않는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신사 벤치에서 날마다 마주치는 아주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여성과도 인사 말고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에 사무쳐 울거나 흐트러지는 일도 없다. 빔 벤더스 감독은 히라야마를 화장실 청소 노동을 하지만 노동계급은 아닌, 어쩌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구도자로 설정해서 영화를 보는 관객이 주인공의 시선에 이입하는데 꺼릴 것이 없도록 한다.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매끄러운 것은 히라야마가 쓸고 닦는 화장실의 거울이 아니라 히라야마 그 자신이다. 여기까지라면 그냥 코로나 시기의 스케치로 충분한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감독은 살짝 틈을 낸다. 그 접촉은 다 여성으로부터 온다. 히라야마 직장 후배의 여자친구, 가출하고 찾아온 조카, 조카를 데리러 온 여동생. 히라야마가 지키는 어떤 경계를 이 여성들은 사소하지만 거리끼지 않고 슬쩍 건드린다. 그러면서도 바로 떨어져 간다. 올드팝이나 중고책이 히라야마에게서 계급성을 탈색시켰듯이 그 접촉들은 히라야마에게 남성성과 인간성을 채색한다.

빔 벤더스와 야쿠쇼 코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타인의 안전, 도시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헌신하는 인물을 구현해냈고,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 헌신은 강박이 아니라 구도자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엔딩 크레딧이 오르고 나서 감독은 '코모레비'라는 말을 쿠키로 남겨놓았다. 일본어 '코모레비'는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빛이란 뜻인데, 그것은 오직 한때, 한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 영화는 코로나 시기였기에 기획되고 제작될 수 있었던 영화적 코모레비, 일상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코모레비일 것이다. "지금은 지금, 다음은 다음"이라고 일깨우면서.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㉛

1. 불교의 기도와 수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엄밀히 나누자면 기도는 자력적(自力的)이고, 수행은 타력적(他力的)이다.
② 기도가 진정으로 성취되려면 업장(業障)을 소멸하고 아상(我相)을 버려야 한다.
③ 기도나 수행을 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한 정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도록 부처님께 청하는 권청(勸請)의 식이다.
⑤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해설 : 엄밀히 나누자면 기도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란다는 점에서 타력적이고, 수행은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임으로 자력적이다. 다만 이는 양자의 성격이 비교적 그렇다는 의미이지 기도에 자력적 요소가 없으며 수행에 타력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불교 신행의 4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신(信) - 해(解) - 행(行) - 증(證)
② 신(信) - 행(行) - 해(解) - 증(證)
③ 증(證) - 행(行) - 해(解) - 신(信)
④ 증(證) - 신(信) - 해(解) - 행(行)
⑤ 행(行) - 신(信) - 해(解) - 증(證)

해설 : 불교 신행은 먼저 신(信, 바른 믿음)을 근거로 해(解, 바른 이해)가 생기며 이에 기초하여 행(行, 바른 수행)을 닦고, 그 결과 증(證, 바른 결과(계위))을 얻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참조로 이러한 술어는 『화엄경』 및 『대승기신론』 주석서에서 나타난다.

3. 다음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안거(安居) : 출가한 승려가 질병과 재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년 동안 외출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제도이다.
② 두타행(頭陀行) : 철저하게 걸식으로 생활하는 등의 청정한 수행을 말하며, 의식주에 대한 탐심과 집착을 버리고 수행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다반사(茶飯事) :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모든 일상생활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임을 의미하며 일상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
④ 자자(自恣) : 안거의 마지막 날 안거를 함께한 이들이 모두 모여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의심한 허물들을 대중에게 토로하고 참회하는 의식이다.
⑤ 포살(布薩) : 보름에 한 번씩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계경(戒經)을 낭송하고 잘못을 고백하며 참회하는 의식이다.

해설 : 안거는 인도기후의 특성상 3개월간 지속되는 장마철(우기, 雨期) 동안은 외부활동이 힘듦으로 출가승려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한 장소에 모여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가 전파된 지역에 따라 장마철이 아닌 너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동안 안거를 하는 하안거(夏安居), 동안거(冬安居)가 있기도 하다.

4. 오늘 날 불교는 서양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에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불교는 참선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② 불교의 믿음이 서구 종교의 전통적인 창조주 신앙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③ 불교는 자연과의 합일과 조화를 중시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④ 불교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⑤ 불교가 우리의 전통문화사상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모습이 살아있는 곳이 사찰이기 때문이다.

해설 : 불교의 믿음은 창조주를 부정하며, 자신 스스로가 지은 업에 따라 결과를 얻는다는 인과를 믿는다. 또한 불교 특유의 무기설(無記說) 상 세상의 창조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아가 특히 불교는 단일원인(창조주)에서 여러 결과(피조물들)가 생겨난다는 설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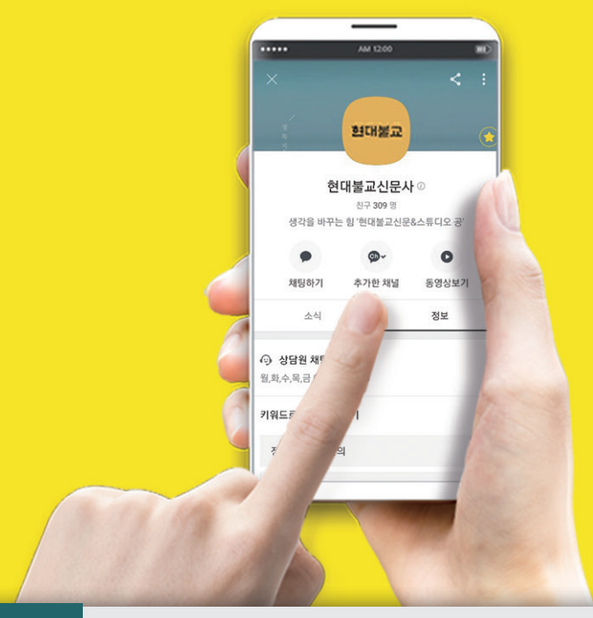
정답 : 1. ① 2. ① 3. ① 4.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16 니까야 ④



▶한줄 요약
초기경전에서는 업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이 아주 풍부하다. 이 법문들은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지으라"는 주제로 귀결된다.

악업 멈추고 선업을 지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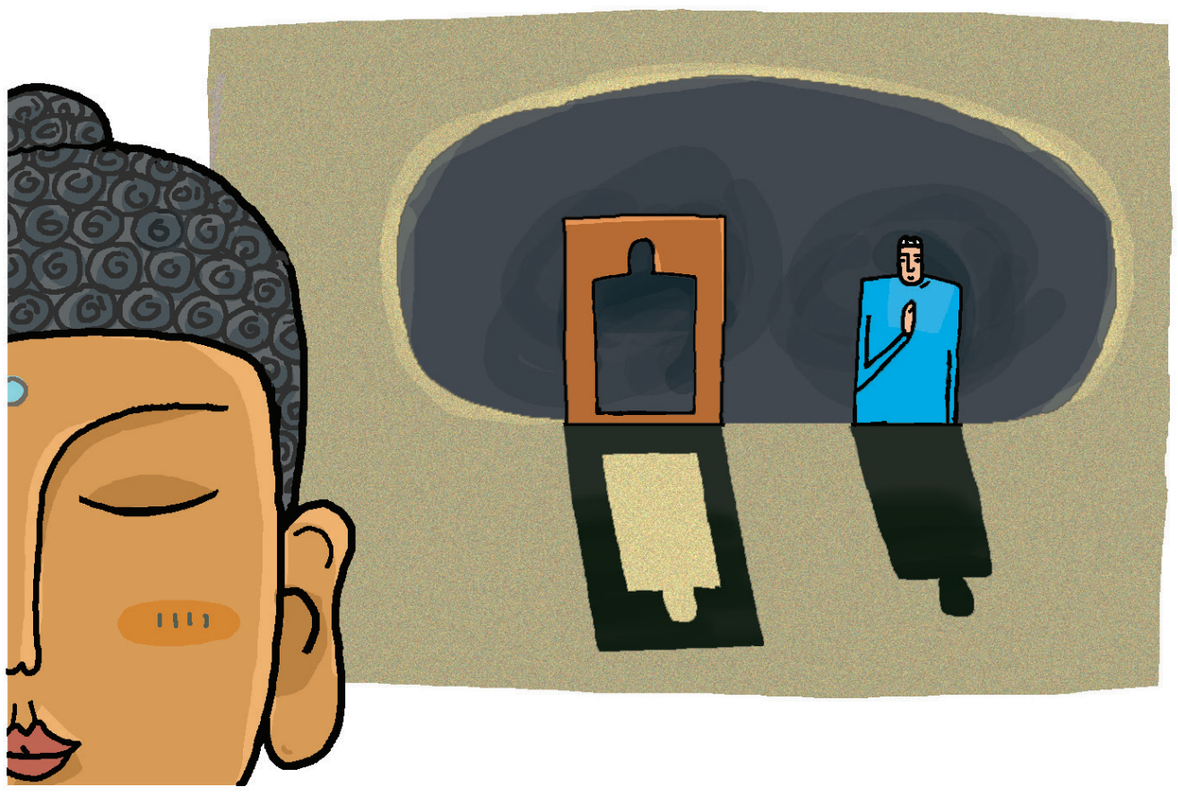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초기경전에 담긴 부처님 법문들
'선업 지어라'는 가르침을 담아
선업 앞서 악업 멈추는 일 선행

붓다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

"그 소식 들었어? 붓다가 우리 동네 오셨대!"

"저기 좀 봐! 왔어, 왔어."

"아, 저기 저분이 그 붓다라는 분이야?"

꼬살라국의 살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들뜬 분위기가 퍼져갑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훌륭한 붓다라는 분, 세상의 존경과 공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응공, 아라한)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가 보자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아쉽던 그 시절에 무슨 심오한 이치를 듣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토록 유명하다고 하니 얼굴이나 한 번 보자'는 궁금증이 더 컸을 것입니다. 붓다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경전에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께 합장하여 인사드리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한 뒤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말없이 한 곁에 앉았다."(대림 스님 옮김, 〈맛지마 니까야〉 '살라의 바라문들 경')

참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습들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붓다를 향한 무게는 다릅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만큼의 인사를 하고서 편한 자리를 찾아 앉은 것이지요. 지극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는 절을 올릴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예를 갖춰 장황하게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어떤 이들은 딱히 붓다에 대해 믿음이나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았으니 제 이름만 말하고 혹은 아무 소리 없이 어디 빈 자리를 찾아 가 앉습니다.

"절을 세 번 하셔야 합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지 않으면 그게 어디 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법당 가운데는 비워두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예법은 아직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지 않았던, 그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첫 만남의 풍경입니다.

붓다에게 행복을 묻다

우루루 몰려가서 나름대로의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자리를 잡고 앉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차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설법은 일방적인 법문이기보다는 제자나 신자가 궁금증을 털어놓고 그에 대해 부처님이 대답하고, 되묻고 다시 대답하고 하는 식의 문답이라고 말이지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는 죽어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죽어서 천상에 가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윤회를 믿고 있는 인도이니 이런 궁금증을 품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지옥은 괴로운 곳이고 천상은 즐거운 곳입니다. 지옥은 행복하지 않고 힘들기만 한 곳이고, 천상은 행복하고 힘이 들지 않고 편안하고 유쾌하며 그 즐거움이 오래 가는 곳입니다. 이 질문은, 죽은 다음에도 괴롭고 힘든 또 다른 생이 이어지는 건 무엇 때문이고, 죽은 다음에 즐겁고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죽어서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 누군가는 "아니, 아직도 지옥이니 천상이니 하는 소리를 하시오? 가보기나 했소? 불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지옥, 천상 같은 미신을 들먹이는 거요"라고 불만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경전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읽고 음미하지 않으면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살아 있던 그 시절, 수많은 사람들과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경전에 수도 없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런 건 불교 아니다"라며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으니, 참 난감합니다.

종교문헌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끌어내는 방식이 있지요. 지옥을 괴롭고 처참한 나락의 경지로, 천상을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경지로 풀어보면 조금 와닿을까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지요. 죽음 이후의 일을 묻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대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을 원인으로 지옥에 가고, 법을 따른 올바른 행실을 원인으로 천상에 태어납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그릇된 행실이란 악업을 말하고, 법을 따른 올바른 행실은 선업을 말합니다.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또다시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고작 악업 짓지 말고 선업 지으라는 거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업'을 이야기할 때면 '고작 업 이야기'라며 냉소를 보내는 수강생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 아실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살아 계시던 시절, 출가한 스님이 아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재가자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지으라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재가자 가운데도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에게는 차원 높은 법문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루틴을 되풀이하며 지내고 그런데도 늘 가난과 불행에 쫓기고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에 더 노출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할 때면 그 법문의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지으십시오!"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자꾸 '고작 업이야기'라며 싱겁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생에 지은 죄라는 둥, 평생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안고 가야 할 그 무엇이라는 둥의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서 벗어나려면…

초기경전에서는 업에 대한 법문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법문이 "당신이 전생에 무슨 짓을 해서 금생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식의 전생담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확히 무엇이 악업이고 무엇이 선업인지를 부처님은 짚어줍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행동, 말로 짓는 네 가지 행동, 뜻으로 짓는 세 가지 행동입니다. 모두 합해서 열 가지 업인데 이 열 가지 업(십업)에는 똑같이 악업(십악업)과 선업(십선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업을 짓는 것에 선행해야 할 것이 악업을 멈추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선업 보다 악업에 대한 설명이 늘 앞섭니다.

그 시절, 부처님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여쭈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이 열 가지 업에 대해 숙지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 가지 행동강령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어서 체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봐야 할 행동강령입니다.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 행동을 멈추고, 멈추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나와 이웃과 세상에 펼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난하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라고 탄식하기 보다는 지금 나의 어떤 행동과 생각이 가난을 불러들이는지를 현실적으로 잘 헤아려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불행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가난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지요. 초기경전에서 수없이 펼쳐지는 업의 가르침은 이런 내용입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985-9190	H 010-2813-8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대행 스님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써 다 작용할 수 있다

일체 만물이 다 끼리끼리 모이듯, 우린 이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끼리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되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 속에 모든 생명과 의식,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인정 못 하겠거든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잉태됐을 때에 열 달 동안 그 모습들을 가지고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조성된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잉태될 때에 처음부터 사람 모습으로 잉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 알처럼 흐늘흐늘하게 시작이 돼서, 올챙이처럼 돼 가지고 수없이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열 달을 채워서 인간 모습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모자라는 거, 잘못되는 거, 또는 잘못된 모습들, 하(下)의 생명들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둘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수없는 나날을 지나오면서 그런 모습을 거쳐서 진화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의 내 모습, 내 모자람으로 보고,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도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봐라 이 소립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느냐 하면, 그렇게 거쳐 온 그 중생들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나입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좇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그 업식을 지닌 인연에 따라서 모두 작용이 되고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죽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나'가 있습니다. 사량적인 육안으로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내 몸속에 들어 있는 만 중생들이 모두 제가끔들 한 가지씩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뿔의 기능, 말은 발차기 기능을 소유하듯, 밖에 있는 일체 만물들, 인간 이하의 모든 동물들도 역시 한 가지씩은 기능을 다 가졌다고 봅니다. 촉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또는 감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또는 청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후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도 모두 한 가지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움죽거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닥칠 때마다 우리가 타파할 수 있고, 또 만법으로써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씩 기능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써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지 다 내 마음으로 그쪽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하면 그쪽에서 그대로 응하고 돌아갑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 몸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내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도둑질을 하러 가자 하면 도둑질을 하러 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전력은 '나쁜 짓을 해라, 좋은 짓을 해라' 하고 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데 따라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의식도 내 마음에 따라서 응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악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선업으로도 쓰고, 악업과 선업이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돼서 바로 응신으로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신! 즉 말하자면 그렇게 응신으로 화해야 응신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이지, 무슨 말만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우주적으로나 모든 걸 대응하고 작용하고 중용을 할 줄 알고, 어떤 거든지 걸림 없이 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권을 갖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도 가끔 합니다, 제일 빠른 게 그거니까. 만약에, 어저께 남을 속이고 따귀를 때렸다면 오늘 반드시 그 따귀가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만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한 시간 전도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사들이 깨친 것은 바로 과거 생, 현재 생, 미래 생을 다 한꺼번에…, 그것이 과거 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현재 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미래 생만 있어도 아니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목석일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이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입니다. 그와 같이 과거 생과 현재 생, 미래 생 바로 삼세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면서, 삼생의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소라고 한다면,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죠.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는 말로 전달을 하고, 행으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피리란 말이에요, 피리! 우리가 한생각을 깨쳤다 하면, '여여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소를 타고 여여하게 피리를 불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입니다.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대로 중생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 한생각 돌리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고 보현신입니다. 마음의 도리,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잘들 들으시라고요. 또, 노인네는 죽어서 요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올 테니까 들어야 하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로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속의 모든 의식들도 내 마음에 따라 응해줍니다

☞ 19면에서 계속

만 그냥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창창하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테니까 들어야 하고. 그러기에 얘기했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오직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를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구상해서 맡겨 놓는다면 그대로 체질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는 까닭에 아기를 잉태할 때 어떠한 형상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원한다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놓고 좀 밝게 태어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부부가 어디다 세워 놔도 괜찮을 정도라면 그대로 두고요, 부부지간에 '나는 간판이 좀 안됐어.' 이랬을 때는 2세를 가차 없이 좀 인물을 좋게 해서 태어나게 하면 어떠냐구요.

이게 마음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의 발전을 이루는 거지, 생활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부딪치는 생활 속에서 마음이 발전해야 바로 진화가 되고, 진화의 능력으로써 바로 창조력을 이끌어서 창조를 하게 됨으로써 모든 생활 자체가 그냥 과학적이게 되는 거죠. 과학도 물질과학이 아니라 심성 과학으로써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마음씨를 생각을 해서, 잉태를 해서 한 아이를 갖다가 착 내놨을 때, 어디다 세워 놔도 모순이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러고도 일반 과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심성 과학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고, 먹어 보지 않고, 잘라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는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 봐야 알죠.

오늘도 스님네들이 잣을 요렇게 소나무 이파리에다 잘 꿰어서 가져왔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전자에 산에서 살 때, 잣을 따서 깔 때는 손에 그 찐득찐득한 걸 다 묻히면서, 요만큼만 까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어려웁게 한 거라 참 귀해서 그것도 큰스님네들 입에나 들어갔지, 그 밑의 사람들은 맛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그 한 알갱이를 입에 넣으려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못 넣었다 이 소립니다. 그거 하나를 볼 때만 해도 그런데…, 요새 살림살이하는 분들은 얼마나 흔하게 씁니까? 잣뿐이 아닙니다. 버섯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도 말입니다. 하나하나 따서 조금씩 해서 양념으로 쓰던 그때, 입에나 넣었습니까, 어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해 보지 않고 자기가 겪어 보지 않고는 아까운 줄 모른다 이 소립니다.

돈도, 몸소 어려웁게 번 돈은 아주 마디게, 쓸 때만 딱딱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냥 흔전만전히 들어오는 돈이라면 흔전만전히 또 나가게 됩니다. 돈은 어떻게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 쓰기가 더 어렵다고 보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인생살이를, 삼세를 꿰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인간이 다 됐느냐 한다면 허, '다 되지 못했다' 할 수도 없고, '다 됐다' 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계발이 되면서 자꾸 달라지는 원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자에 모자랐던 것을 채울 수도 있고, 전자엔 잘했는데 타락이 돼서 그 능력이 그냥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유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도 자유고 악업을 쌓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될 수 있으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악업을 쌓으면 대대로 악업이 내 앞에 올 것이고, 선업을 쌓으면 대대로 선업이 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어떤 생명이든 어떤 물질이든 다 끼리끼리 놓여 있습니다. 끼리끼리 삽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사람은 악연을 가진 사람들하고 모이게 돼 있지요.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물은 나물대로 놓여져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져 있고, 그것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 놓기도 하고, 깡통은 깡통대로 놓여져 있고 무쇠는 무쇠대로 놓여져 있고…. 이거를 가만히,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세상만사를 한번 둘러보면, 인간의 차원도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살라고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하되 왜 선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악으로 끌고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잘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마음을 내야 알아듣고, 즉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움죽거려 준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이 업식이 바꾸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속의 이 모든 의식들이 바로 화해서 바뀌집니다. 화한다는 건 바뀌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마음으로 바꾸어진다는 얘깁니다.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모두 거기 놔라 하는 것은 내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과거에 업을 지은 대로 자꾸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과거의 모든 거를 네가 한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할 수 있어'지 '해 주십사'가 아닙니다. 그럭한다면 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생각 하나 하나가, 한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죽고 사는 것도 없어집니다. 육신이야 죽고 산다 하지만 마음이야 어찌 온 것이 있고 갈 것이 있겠느냐 이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움죽거려지고, 마음으로부터 이 지구가 돌아가고, 마음으로부터 일체 만법이 다 형성되고 돌아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가 깨쳐서 한마음이라면 일체제불 마음도 거기에 한꺼번에 다 속해 있고, 일체 중생, 일체 우주 만물만생이 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움죽거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 한꺼번에 움죽거리면서 한마음으로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촉각으로 하는 기능이 있거나 또는 후각으로 하는 기능이 있거나 하는 모든 거를 한마음으로 모두 굴릴 수 있다, 자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모든 문제들도, 그 영령들도 그렇게 한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면 싸움이 있겠지만 한 마음으로 바로 둘이 아니게 놓는다면, 내가 된다면, 둘이 돼야 액이 오고 혼란이 오고 그럴 텐데, 하나가 돼 버리니까 혼란이 없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태어나기 전의 업식으로 인해서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는 도중에 그냥 그 유전으로 인해 영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살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야 정상인데, 한 몸에 두 사람의 마음이 사니까, 세 사람 마음도 살고, 네 사람 마음도 살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이라는 건 말도 못 합니다. 금방 딴소리하고, 금방 딴소리하고 이러니 그게 이름해서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우리가 정신계의 모든 것을 안다면 100%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계의 50%, 반을 모르기 때문에, 반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다면 그냥 걸림 없이 원을 돌아야 할 텐데, 반밖에 돌 줄 모르니까 반이 막힌 거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마음의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거리니까, 그 반에서만 뱅글뱅글 도니까 걸릴 수밖에 없죠. 삼세를 그냥 돌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애고가 와도 어쩔 수가 없고, 병고가 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요? 어떤 나쁜 병이라고 병원에서 말한다 해도, 어떤 핑계든지 그런 병이 들어서 오는 원인은 유전성이 될 수도 있고 영계성이 될 수도 있고, 업보성이 될 수도 있고 세균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해결치 못한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0%를 한데 합쳐서 우리가 100% 응용을 한다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죠.

가만히 보면 "참 애로가 많은데 주인공을 찾아도 아니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지…." 이러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힘이 있든 없든 수억겁 전에서부터 자기를 끌고 왔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님만 연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스님이니까 스님은 자동적으로 벌써 주인공에 첨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들이 다섯이 있다고 합시다. 도둑질하는 놈과 망보는 놈들이 다 도둑놈이지, 어떻게 도둑놈이 아닙니까? 지키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물건을 받아 가지고 가는 놈도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도 도둑놈이죠? 도둑질을 시키는 놈도 도둑놈이죠? 다 도둑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르치는 나도 똑같은 놈이란 얘깁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놈이라 이 소립니다.

똑같은 놈이라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허탕으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신으로 화해서 거기에 첨보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미리부터 나는 힘이 없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묘법인데 그러십니까?

다음 호에 계속

>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 잘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내야 알아듣고,
> 즉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어
> 움죽거려 준다는 거를 꼭 알아야 합니다.
> 그래야 하나하나 이 업식이 바꾸어집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2월 7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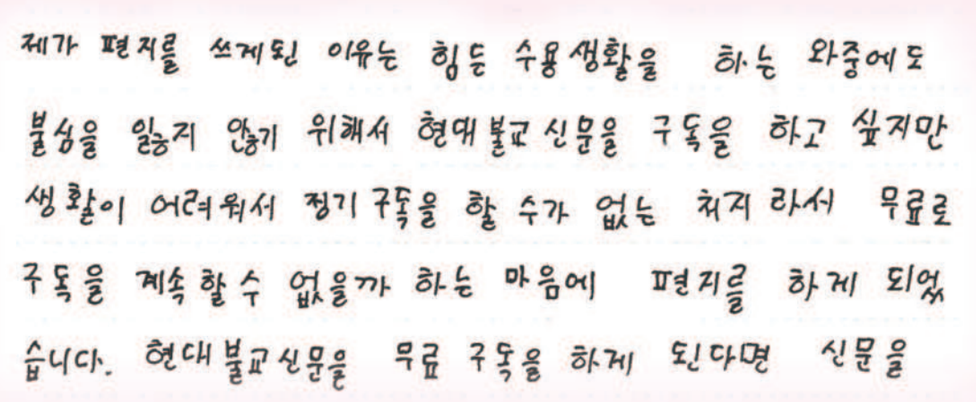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㉑ 고통을 마주한 붓다

좌절 경험은 참된 교육 시작

7500만원! 희정씨(가명)가 자녀에게 3년 동안 쏟아부은 영어 교육비이다. 그녀는 영어 전집으로 거실 벽면을 가득 채웠고 영어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6개월이 된 아기에게 외국인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보살피게 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영어책을 밟고 다녔어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영어로 노래를 틀어놓고 대화했죠."

그녀의 목표는 딸 재희(가명)가 적어도 서울대에 가는 것이라 했다.

영어유치원을 다닌 재희는 7살이었고 대화가 필요할 때면 귓속말로 한국어를 속삭이곤 했다. 영어로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기도 했고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걸 들키면 엄마의 호통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희의 일상은 영어유치원을 다녀온 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바이올린. 하루 동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집에 돌아와 쉬려고 하면 영어 동영상 강의가 자동으로 무한 반복되었다.

희정씨가 상담실 문을 두드린 건 딸 재희의 선택적 함구증이 원인이 됐다.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자 재희는 말을 하지 않았고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말만 유치원 선생님께 귓속말로 작게 속삭였을 뿐 항상 혼자 있거나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은 지독하다. 더 심하게 표현할 말이 있다면 바꿔 사용하고 싶을 정도다. 기형적이고 정신증적이다.

교육열로 가족 관계가 깨지고 아이가 힘들어해도 엄마들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와 경제력을 쏟아부어 교육 시킨 아이들이 막상 세상에 나가면 주저앉기 쉽상이다. 두렵고, 힘들어한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

양육과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오랜기간 '성공'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반대 그림자에는 엄마들의 불안이 숨어있다. 엄마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행복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진부한 공식을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이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정서도 외면한 채 교육에 몰두하는 엄마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은 언제나 엄마들을 부추기며 현재를 잊게 한다. 도저히 멈추지 못하는 갈증처럼 아이들을 보채며 닦달하는 모습이다. 이런 유형의 엄마들이 제일 마주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실패와 좌절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좌절이다. 부모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을 피하긴 어렵다. 이것이 인생이다. 시련에 강한 아이, 즉 좌절 인내력을 적절하게 키우고 스스로를 믿는 맷집이 강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행복에 공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신과 의사 조지 E. 베일런트 (George Eman Vaillant)는 "행복한 삶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보다는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불안이 만든 기형적인 양육
교육의 중심, '자기 결정성'

〈법구경〉에는 베나레스라는 지역에서 사는 한 부자 부부가 나온다. 마하다나라는 사람의 부모는 팔억 냥의 재산을 가진 부자이며 아들의 교육에 대해 고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안타깝게도 방임적 결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재물이 가득 쌓여있고 아들이 원하는대로 즐기도록 해주는 것 외 달리 해줄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결국 마하다라는 부모의 임종 후 큰 재산을 소유했지만, 주변인들의 꾀임으로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꿈을 꾸며 노력하는 결정권을 줬으면 어땠을까? 좌절을 경험하며 삶의 고통을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더라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이다. 사람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결정한 것이 아니면 의욕을 느끼지 못한다. 동기(motivation)의 선구자 리처드 라이언(Richard Ryan)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나 자위가 아니라 '자기 결정성'이라고 했다. 자율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스스로가 결정한 꿈의 행보에서 만나는 좌절은 열정으로 극복하는 드라마가 되고, 실패도 받아들이는 내면의 힘을 갖게 한다.

두 번째는 쾌락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충동적 선택을 줄이며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것도 좌절 경험이다. 쾌락의 원리만을 따르는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의 부적절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변명하고 핑계를 댄다.

즉, 모든 교육의 중심은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마주하도록 돕는 것이다.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두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성장의 과정이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다.

조선미 교수는 책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에서 '아이를 사랑한다면 좌절을 겪게하라'고 했다. 이 말에 더해 시련을 단계적으로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녀의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며 스스로 알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이다. 붓다의 깨달음은 고통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⑮ 걷기 센서, 발가락

발가락 관절 균형, 건강한 신체 만든다

발가락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

사람의 발가락은 한 쪽에 14개의 발가락 뼈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뼈로 구성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은 하나의 발가락마다 3개의 뼈로 구성됐다.

발가락은 걷고 뛰는 데 균형을 찾아내고 추진력을 내는 기능을 한다. 우선 추진력에서의 중요성은 발가락의 힘과 길이에서 볼 수 있다. 순간적인 속도와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발가락을 조사해 보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 길다. 기다란 발가락은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발 전체에 큰 힘을 발생 가능하게 한다.

비록 더 길고 더 무거운 발가락을 가속 및 감속시키는 데 추가적인 대사 비용이 들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거리 걷기와 우수한 단거리 선수들이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한다.

짧은 아킬레스 지렛대와 결합되는 긴 발가락의 조합은 자연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시속 112.5km 이상의 속도로 단거리를 달릴 수 있는 치타는 사자보다 땅에 가장 먼저 닿는 뒤꿈치의 뼈인 종골이 짧고 발가락이 길다. 걷는 데 있어서 발의 추진력을 내는 데 발가락의 힘이 매우 중요한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발가락의 균형 유지 기능이다.

사람 발가락의 감각은 고양이의 수염에 비유할 수 있다. 고양이 수염은 몸을 덮고 있는 털보다 2배 정도 두껍고 3배 정도 깊은 곳에 뿌리를 박고 있다. 특히 모근의 고리처럼 둥근 부분에는 혈액으로 채워져 있어 수염에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을 증폭시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모이다.

그 길이는 자기 몸의 넓이와 비슷하다. 좁은 장소를 지나갈 때 고양이는 먼저 수염을 쫙 편 뒤 얼굴을 넣어 수염이 닿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수염이 지나갈 수 있다면 몸도 지나갈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런 고양이의 수염을 반을 잘라보자. 그럼 고양이는 활동을 하면서 수염이 잘린 오른쪽의 감각이 없어지고, 방해물이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 처음에 고양이는 딱딱한 물체에 부딪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한다. 그런 상황을 지속하다 보면 정보를 찾아내지 못하는 오른



쪽에 대하여 고양이는 매우 조심하게 된다. 반면에 왼쪽은 정상대로 감각을 유지하고 그 정보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정보가 없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오른발이 불완전하게 움직이고, 속도가 느려진다.

발가락이 약할 때의 문제점

사람의 발가락도 고양이 수염처럼 감각 기능이 있어 지면의 정보를 흡수하고, 걷고 뛰는 동작을 하면서 다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김세연의 KSNS에 의하면 사람의 발은 둘로 되어 있어서 발이 하나만 잘못해도 넘어져 큰 부상을 입는다. 또 걸어갈 때 사람의 눈이 발바닥 밑을 보고 걷지 않기 때문에 한 발이 잘못할 때 동물들과 달리 큰 부상을 당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다섯 발가락에 고양이 안테나와 같은 섬세한 감각신경이 심어져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발가락의 감각 둔화는 수염이 잘려진 고양이처럼 온몸의 경직된 상태를 불러온다. 10개의 발가락이 제대로 구부리는 힘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동맥과 정맥의 반환점인 발가락 끝에서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긴다.

발가락의 감각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온몸의 신경구조와 근골격계의 좌우, 상하 균형이 맞을 수 있다. 건물로 비유한다면 1층이 평평하고 튼튼해야 2, 3, 4층도 평평하게 오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발가락 관절의 균형이 신체의 기초인 셈이다.

강화하기 위한 방법

김세연의 KSNS에 의하면 신경이 약하거나 고장 나 있을 때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오히려 그 부분이 악화된다고 한다. 그렇게 때문에 약해진 신경이나 고장 난 신경을 풀어주고 정상화 시킨 후에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

발가락의 신경은 발톱 바로 위에 있다. 이 신경 부위를 볼펜이나 라이터같이 가벼우며 딱딱한 물건으로 눌러주고 주물러주기를 5분 정도 반복한다. 이 때 발이 아프지 않으면 신경에 아무런 자극도 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 '어쨰 아프네!'하는 정도로 눌렀다가 손으로 주물러 주면 그 아픔은 곧 사라진다. 무의식 신경의 통증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 아픔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닥 쪽의 발가락 마디를 역시 꽤 아픈 정도로 문질러 주기와 주물러 주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발가락 신경이 자극되고, 활성화된다. 그런 다음에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한다.

발가락 강화운동으로는 수건을 바닥에 펼쳐놓고 발가락을 굽혀 수건의 한쪽 끝을 조금씩 쥐어 끝까지 당겨 온다. 좌우 5~10회 반복하거나, 작은 구슬이나 자갈 등을 약 20개 흩어 놓고 발가락으로 구슬을 하나씩 쥐어 그릇에 모두 옮겨 담는 운동이 효과가 좋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아이들이 사찰합창단 활동 통해 부처님 법 스며들길 발원합니다

2017년 나는 부산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갔던 사찰의 어린이 법회에서 중창단 활동을 했던 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당시 내가 합창단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지휘자로 임명되었을 때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기우였던 듯 아이들과 함께하는 합창의 시간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처음 합창단을 시작했을 때, 나는 합창의 음악적 요소에 치중하여 아이들에게 합창을 가르치고자 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휘하며 생각의 변화가 이뤄졌다. 어린 시절 중창단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 불교가 스며들고 익숙해지며 사찰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쌓아갔듯이,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도 단순한 합창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는 '아이들에게 불교합창단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사찰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갖도록 하겠다'는 발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발원은 합창단의 합창곡으로 자주 불렀던 찬불가의 좋은 가사에서 큰 힘을 얻었다. 나는 합창곡 선정 시 가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찬불가의 좋은 가사는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고 사찰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할 만한 힘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행히 찬불가의 가사는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만한 단어들로 적혀있기도 했다. 물론 그럼에도 일부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기에 나 자신이 공부해야 했다.

덕분에 이 과정은 나 자신에게도 불교를 공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했다. 특히 찬불가에는 육도윤회, 바라밀, 옴마니반메훔 등과 같은 어려운 불교 용어들이 자주 가사로 나왔는데, 그 의미를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책과는 거리가 멀던 내가 책을 펼치고 인터넷 검색을 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 용어들을 합창 안무로 구성하기 위해 몇날며칠을 고민했다. 그렇게 안무를 완성하여 아이들과 함께 찬불가를 즐겁게 노래하다 보면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중창단 활동을 했던 경험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에게도 매주 사찰에서의 합창 시간이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

비록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찰에서 합창을 가르치는 것 뿐이지만, 아이들이 이를 통해 사찰을 익숙하게 여기고, 부처님에 대해 궁금해하며, 부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이끌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전법의 여정이 나와 아이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려 한다.



이지윤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⑧ 법정 스님의 오도송

번뇌 걷어내면 그 자리가 '정토'

어찌 서쪽에만 극락이랴

옳거나 그르거니 내 몰라라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이랴
흰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

법정 스님(1932~2010)은 따로 오도송이나 열반송을 남기지 않았다. 월주 스님도 "내가 살아온 일생의 삶이 오도송이고 열반송"이라고 하였다. 법정 스님은 산문으로 필명을 얻었지만 어쩌다가 몰록 남긴 선시는 깨달음의 경지가 깊고 진하여 감동을 주었다.

이 시는 속가의 외조카이며, 조카상좌인 현장 스님에게 생전에 붓으로 써서 준 자작 애송시이니, 스님의 오도송으로 봐도 좋겠다. 법정 스님의 모습과 성격처럼 깔끔하고 간결하다. 군더더기가 없고 속기가 없는 청아한 품격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전통 가락인 3·3·5조의 선취시(禪趣詩)이다.

이 시는 시시비비(是是非非)의 분별심을 떠나고, 번뇌망상의 먹구름만 걷히면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인 청산(靑山)임을 밝힌 깨달음의 노래이다. 산과 물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자연보호와 생명 사랑의 마음이 불교의 연기사상으로 잘 표현되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내 생각만 옳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아만심(我相)을 다스리는 공부이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갈등과 고통의 근원은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일이다.

결국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이랴 흰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은 생불조사의 사자후이다. 어찌 깨달은 대장부에게 서쪽에만 극락이 있겠는가. 처처가 부처 없는 곳이 없고 일마다 불사가 아닌 것이 없다. 임제 선사는 "언

깨달은 대장부에게 서쪽에만 극락 있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한 자리, 향기로운 꽃 핀다

제 어디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정토가 된다"고 했다.

법정 스님은 '살 때와 죽을 때'란 글에서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했다. 스님은 투철하게 공부했고, 엄격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절제했다.

스님은 영가 대사의 말씀대로 몸에는 항상 누더기옷을 걸친 가난한 수행자였으나 도는 가난하지 않고 마음속에는 무가보(無價寶)의 보배구슬을 지니고 수행했다. 청빈(淸貧) 무소유는 스님의 힘이요, 화두였다. 버리고 또 버려서 무소유가 되었고, 비우고 또 비워서 텅 빈 마음인 본래 마음자리의 모습이 되었다. 국민들은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통해서 위로받았다.

재화가 신이 돼버린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소유적 삶을 몸소 실천하여 실험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룩한 삶이었다.

스님께서는 "등산을 할 때 너무 많이 물건을 챙기면 도리어 그것이 짐이 되듯이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라. 너무 많이 소유하려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했다.

필자가 법정 스님께서 길상사를 떠나시던 날 애도의 마음을 담아 '비구 법정 가시는 날'을 지어 읊조렸다.

"〈전략〉 스님은 흔한 만장 하나 없이 그냥 훌훌 털고 평상복 차림으로 가셨습니다. 아직은 꽃샘추위가 매서운데 기어이 먼 길 떠나셨습니다. 지는 꽃보다도 아름다운 스님 가시는 모습 깨끗하다 거룩하다 합장하여 불러 봅니다. 그 동안 스님이 있어서 세상은 향기가 있었습니다. 무소유 맑고 향기로운 세상 스님이 저희에게 남기고 간 숙제입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비구니회 탄소중립 실천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집행부가 8월 7일 회관 내 메타공연장에서 올 한 해 진행한 상반기 사업을 보고 하고 하반기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임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부서별 활동 현황 공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날 각 부서가 발표한 다양한 업무 추진과제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불교 홍포 및 계승뿐 아니라 대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가 진행된다.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자문서 공유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비구니회 측은 이를 통해 연간 2~30만 장의 종이뿐 아니라 복사기 토너와 기타 제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30만 장 종이 절약은 30년 된 소나무 2~30그루를 살릴 수 있는 양이다.

종이로 제작 배송됐던 회지 '비구니'도 e-book 제작으로 변경된다. 비구니회 측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비구니회원들의 관심도 불러일으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 19일에는 탄소비움 자비채움을 주제로 환경 대축제 '그린붓다데이'가 열린다. 콘서트와 캠페인으로 구성된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기업에서나 사회단체에서나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의미하는 ESG를 기반으로 한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눈앞의 현안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당면 과제를 넘어서 불교적 혜안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종교의 역할일 것이다. 비구니회의 탄소중립 실천이 사회적 책임에 어떤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외면한 무릎 통증이 탈골·인대파열
수술비보다 걱정 앞선 '가족 생계'

네팔노동자 수딥 씨, 공장일하다 무릎 다쳐
병원비만 1500만원…치료 중단하고 퇴원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문두루비법과 진호국가불사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교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요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는 말이 살짝 유행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나라를 구했던 영웅 중에 명랑(明朗) 스님을 능가하는 분이 없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문무왕 8년(668), 당나라군이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남은 군사를 백제에 머물게 하고 장차 신라를 쳐서 멸망시키려 했다. 다행히 정보를 미리 입수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하자, 한 신하가 용궁에서 비법을 배워온 승려라며 명랑을 추천했던 거다.

급박한 상황에서 등용된 명랑은 경주 낭산(狼山)의 남쪽 신유림(神遊林)이란 곳에 정식 도량을 개설하도록 건의했는데, 때마침 사자(使者)가 달려와 당의 수군이 이미 한반도 인근 해상을 순회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명랑은 급한 대로 오색 비단을 써서 임시로 절을 짓고 풀〔草〕을 엮어 오방(五方)의 신상(神像)을 밀단(密壇)에 봉안하여 유가명승(瑜伽名僧) 12명과 함께 문두루비법을 행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놀랍게도 무려 50만 대군을 태운 당나라 배들이 정주(貞州) 인근 해상에서 격랑에 휩쓸려 침몰했고, 이듬해(671)에도 5만의 대군이 침입했는데 역시 같은 비법으로 인해 모두 수몰되었다고 『삼국유사』는 전하고 있다.

문두루는 원래 산스크리트어 'Mudra'의 음사(音寫)이며, 중국 동진(東晉) 시대에 뜻으로 번역한 말이 '신인(神印)'이다. 오방의 신상이란 일정한

명랑 스님의 문두루비법은
일촉측발 전시 상황 호전
진호국가불사 참뜻 되새겨

규격의 둥근 나무 위에 오방신왕(五方神王)의 이름을 써서 만든 일종의 재래식 신상(神像)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교의 이러한 상징적 도구를 삼매야형(三昧耶形)이라고 한다. 일종의 초기밀교적 공감주술이 이 문두루비법의 근간인 듯한데, 이를테면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식이다.

문무왕 19년(679), 삼국통일과 나당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명랑이 종전에 문두루법을 행했던 신유림의 임시도량 터에 사천왕사(四天王寺)가 새로이 창건된다. 사천왕사는 국가적으로 관리된 사원이기도 했고, 신라불교에 있어 그 사격(寺格)이 가장 높았다. 근래에 들어 경주시 배반동 소재의 낭산 아래턱에 폐사지로 남아 있던 사천왕사 터가 발굴되면서 수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조금씩 그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특히 파편 조각들을 복원한 녹유신장상이 100년 만에 공개되어 몇 해 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를 요약해 보면 이렇다. 사찰의 전체 윤곽은 중앙의 금당을 중심으로 전방 동서의 탑과 후방 동서의 단석(壇石)이 오방신(五方神)의 상징적 표현으로써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특히 후방에는 각각 지름과 깊이가 약 20㎝를 웃도는 구멍이 뚫린 12개의 초석(礎石)이 동서 대칭의 형태로 총 24개가 남아 있는데, 이는 12명의 유가명승에 대응하는 상징적 조형물임이 확실하다. 이처럼 명랑의 문두루비법은 일촉즉발의 전시 상황에서 사태를 일거에 호전시킨 진호국가불사의 일례로서 13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히 인간의 지성으로는 풀 수 없는 불가사의함을 사천왕사 터에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통일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 진호국가불사의 참뜻을 되새겨본다.

끝나지 않은 충청 지역 불상 환수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얼마 전 월간지에 모 교수가 쓴 부여 백제관음보살입상과 서산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기고문을 보았다. 주요 내용은 '해외 유출 불상에 대한 감정 과잉'을 지적하는 것이다. 내용 중 일부는 이와 같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거액을 들여서라도 규암리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을 구입해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과 적절한 가격 이상으로 사들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해외 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했다. 그런데 그 애틋한 마음이 지나쳐 감정의 과잉으로 나아갔다."

두 불상의 환수 활동을 10여년 간 함께 했던 필자로서는 해당 기고문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 문화유산 회복운동의 본질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2013년 3월 '불상 봉안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7년간 재판을 거쳤다. 재판 결과는 민법상 '시효취득 성립'에 의해 대마도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했지만, 고려 말 왜구의 약탈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결국 재판은 약탈품이라도 점유 시효로 인해 소유권이 20년 이상 점유자에게 있다는 민법의

서산 관음상 등 환수 비판은
피상만을 본 무책임한 행동들
역사적 상처 치유임을 알아야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도품(盜品)에만 주목하고 역사적 사실을 밝히거나 재판부에 의해 전부 배척된 피고 검찰의 무리한 항소 이유를 질타하기보다는 여전히 약탈의 개연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피상적인 결과보다는 깊이 있는 안목과 공부가 절실하다는 것이 봉안 운동에서 겪은 체험이다.

부여 규암리 백제관음보살입상에 대해서는 가치보다는 가격에 집착하며 "거액의 협상액을 꾸중"한다. 그럼에도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불상의 가격을 밝힌 것은 정부다. 이는 이전에 없던 일이며, 협상에서 벌어진 과정이고 결론이 아니다. 지금도 과정에 있고 과정은 변하게 된다. 그러니 일부의 내용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유산회복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예술 등 전 분야가 집약된 운동이다. 역사적인 활동에는 일각의 주장만이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의 의견과 여론도 중요하다.

손재형 선생은 1943년 폭탄이 떨어지는 도쿄로 가서 소장인의 거듭된 거절에도 100일 안부 인사를 하는 정성을 다한 끝에 현재 국보인 '세한도'를 돌려받았다. 정성을 다한 것이다. 회복과정은 이처럼 정성과 정량이 합치될 때 그 효과가 만발한다. 마치 병자에게 약물과 기도가 필요한 것과 같다.

감정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승화돼야 한다. 회복 운동은 물건 되찾는 일이 아니라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소모적 쟁화(爭話)보다는 안목있는 성찰(省察)이 절실하다. 지금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社 說

단기출가·여름불교학교, 계층포교 계기로

7월 내 이어졌던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염천(炎天)을 피해 산과 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날 시기가 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휴가 대신 나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단기출가 체험이다. 수원 봉녕사 제2기 여성출가학교에는 9명의 여행자들이 참여해 비구니 승가의 일상 수행과 생활 전반을 체험했다. 이번 2기는 여름휴가 기간동안 입교해 생활할 수 있도록 10일로 일정을 단축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는 청년회원 16명이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해 단기출가 생활을 해서 화제가 됐다.

휴가 대신 단기출가, 어린이 불교학교 재시동
전법 · 포교 화두 대두…지속적 지원 이뤄져야

이들은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활용해 동참한 이번 참가자들은 출가 기간 최선을 다해 수행에 임했다.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내는 '무명초 자르기'를 시작으로 개인물품 봉안, 행자복 착복, 대승원력 10계 절하기 및 발원문 낭독 등을 통해 출가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 여름 눈길을 끄는 포교 트렌드 중 하나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의 완전 부활이다. 전국 사찰에서는 일상 예절을 배우거나 태양 관측, 숲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캠프들이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사찰 여름불교학교들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에는 서울 봉은사가 첫 어린이 영어법회를 봉행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경력 20년의 전문가들이 선생님이 돼 진행한 법회에서는 영어로 사찰예절을 배우고, 게임도 하며 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시작된 대학생 전법 활성화와 함께 MZ세대를 중심으로 '힙(Hip)불교'가 부각되면서 전법·포교 전반에도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불교 신도 연령 구조는 타종교와 달리 역피라미드 형태다. 노인 신도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청년 등 계층포교의 붕괴로 인한 결과물이다.

실제, 어린이 포교의 경우 일제강점기 사찰 포교소에서 운영됐던 일요불교학교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1982년 부산불교어린이지도회가 창립되면서 현대적 포교가 이뤄지며 한때는 어린이 불교 전문 잡지까지 발행될 정도 활발했지만, 1990년대 이후 어린이 법회가 줄면서 계층포교라는 포교 사다리는 무너졌다.

사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단기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도 꾸준히 투자해야 진성 불자 한 명을 만들 수 있다. 불교계 전반이 '포교·전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움직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불교중흥의 성패는 포교·전법에 있음을 알고 전 사부대중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같은 기회는 쉬이 오지 않음을 사부대중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 ~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8월 1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8월 1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8월 1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